



본 자료집은 언론기사 내용을 첨부하여 재 인쇄한 것입니다.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2009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명동 청어람 5실(명동역 3번 출구)

- 주최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 후원 _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 크리스체너티투데이한국판
한국교회봉사단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발행일 | 2009년 11월 27일(언론기사 포함 재인쇄)

발행인 | 우창록

편 집 | 조제호

발행처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1가 217 세대빌딩 401호

Tel_ 02-794-6200 Fax_ 02-790-8585

이메일_ trust@trusti.kr

www.trusti.kr / www.trustchurch.net

*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로 만들었습니다.
표지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55%(사용전)의 양코르지이며,
내지는 고지율(재생펄프 함유율) 60% 이상의 중질만화지를 사용하였습니다.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2009년 11월 13일(금) 오전 10시

명동 청어람 5실(명동역 3번 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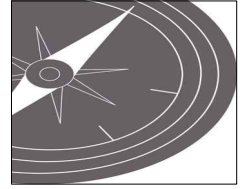
- 주최 _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 후원 _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 크리스체너티투데이한국판
한국교회봉사단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사 회 : 이 상 화 사무총장(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 인 사 말 - 김 동 호 목사(높은뜻교회연합)	
● 모두발언 - 임 성 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와문화)	
● 한국교회에 드리는 서신	6
● 여론조사 결과 기초보고서	9
● 여론조사 질문지	30
● 주제발제 1 - 김 병 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책임연구원)	33
● 주제발제 2 - 조 성 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53
●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 언론보도 기사모음	59
● 한국교회신뢰지표 소개	65
● 기윤실 소개	70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조직구성 및 진행일정

1. 조직구성

- 책임연구원 : 김병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기윤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
- 검토위원회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대학원, 검토위원장), 신창운 기자(중앙일보 여론조사 전문)
 양세진 사무총장(기윤실), 양희송 실장(바른교회아카데미)
 이상화 사무총장(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외문화)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 실무팀 : 조제호 팀장(기윤실), 선혜림 조교(서울대 경제학 석사과정)
- 공동주최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 후원 : CBS, 국민일보, 목회와신학, 크리스채너티투데이한국판, 한국교회봉사단
- 여론조사 기관 : 글로벌리서치(대표 지용근)

2. 진행일정

- 1차 검토위원회 : 2009년 6월 16일
- 설문문항 초안 작성 : 2009년 7월 29일
- 2차 문항검토 : 2009년 8월 12일
- 3차 문항검토 : 2009년 9월 3일
- 본 여론조사 : 2009년 9월 28일~29일
- 결과발표 세미나 : 2009년 11월 13일 오전 10시 / 명동 청어람
 - 모두발언 : 임성빈 교수(장신대 기독교외문화, 기윤실 공동대표)
 - 주제발제 : 김병연 교수(책임연구원, 서울대 경제학부, 기윤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2009년 11월 13일 발표되는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보고서는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현 상황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돌아보기 위한 사역의 열매입니다.

지난 22년 동안 기운실은 사회변화를 위해 다양한 사역들을 섬겨왔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신뢰가 많이 실추된 상황 속에서, 사회변화를 위해서는 먼저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이 필요하다는 고민 속에서 교회신뢰회복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2007년 가을 ‘한국교회신뢰지표’를 개발하여 교회 스스로가 교회의 건강성을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회의 비전과 리더십, 재정 및 인력운영,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도의 삶,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회 신뢰성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습니다. 한국교회신뢰지표를 통해 한국교회가 안으로는 거룩함과 사랑을 회복하고 밖으로는 윤리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여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진정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적인 본질 회복을 위한 섬김이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가을에는 ‘교회의 사회적책임 2.0 심포지엄’을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의 방향과 내용이 사회복지라는 틀에만 한정되지 않고, 환경과 문화와 교육과 인권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특히 2008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한국교회가 이 사회로부터 얼마나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객관적인 수치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참담한 결과였지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데 귀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분들의 요청과 고민을 통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실제적인 프로그램과 실천 매뉴얼을 제시하기 위해 2009년부터 교회의 사회적책임 포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 환경, 문화, 마을경제라는 주제로 사회적책임 포럼을 진행하였으며, 환경, 문화, 마을경제를 위해 섬기고 있는 지역교회의 실제적인 사례들을 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국교회에 드리는 서신

그리고 마침내 지난 11월2-4일 지구촌교회 영성수련원인 필그림하우스에서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를 진행하였습니다. 시민사회의 한 주체로서 교회의 역할과 책임을 고민하고 시민사회의 다양한 행위주체들과의 소통과 협력을 모색하였으며, 한국교회가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섬김의 현장을 공유하고 비전을 새롭게 다듬어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본질 그리고 진정한 교회다움이 교회의 사회적책임 활동으로만 설명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급변하는 문화의 흐름 속에서 교회는 사적존재(Private Being)가 아니며 시민사회의 책임있는 주체인 공적존재(Public Being)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신뢰의 통로임을 확인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하기를 소망할 뿐이었습니다.

이제 2009년 실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내놓으며,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두번째 실시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의 신뢰하락 속에 작년에 바닥을 친 이후 적지만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함께 동봉한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결코 한국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해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목회자와 교인들 스스로가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 못지않게, 이미 벌써 사회 속에 공공기관으로 자리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얼마나 되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자기반성과 갱신을 위해 불편하고 고통스럽지만 꼭 감당해야 할 과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회복을 위한다고 하는 진심어린 마음으로 시작되었다고 할지라도 의도하지 않게 세상의 조롱과 비난의 빌미가 될지도 모른다는 안타까움이 함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작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고, 또 그 결과를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절박한 현실인식과 교회를 향한 절절한 갈망을 부디 넓은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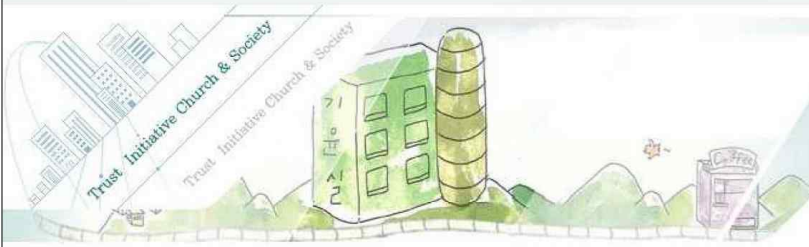
부디,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점검하면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더욱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결단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 각 개인들이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한국교회의 지도자들과 교회가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9년 11월 10일

이사장 **우창록**

공동대표 **김동호 이동원 이장규 임성빈 주광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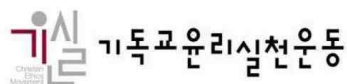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공동대표 **김동호 박은조 손인웅 오정현 이동원**



2009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조사결과 기초보고서

2009. 11. 13



I. 조사 개요

I.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우창록, 이하 기윤실)이 글로벌리서치(대표 지용근)에 의뢰하여 진행한 것으로 개신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정과 관련, 지난 2008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하는 조사 연구로서 현재의 신뢰성 수준을 파악, 한국 개신교회의 건전성 확립 및 교회발전을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조사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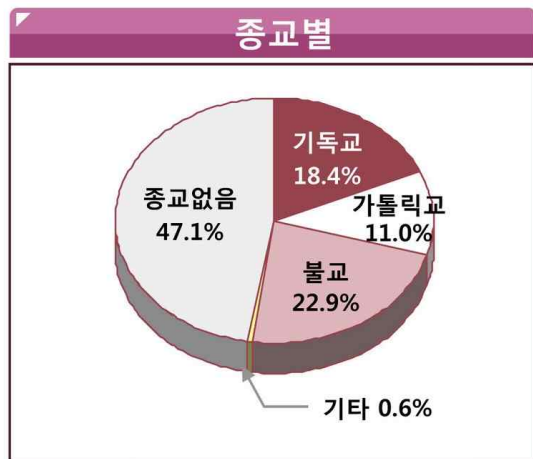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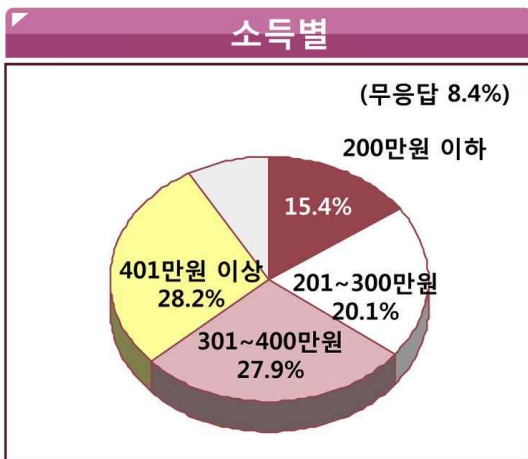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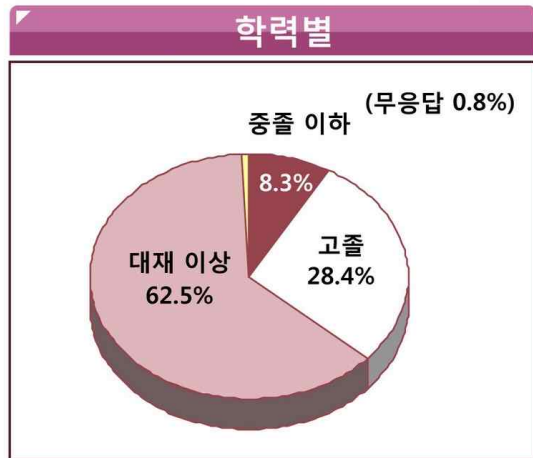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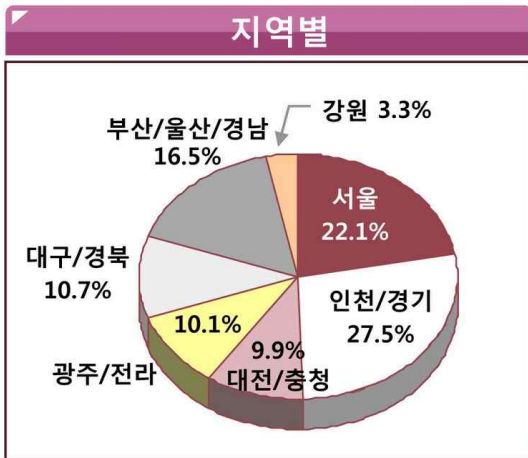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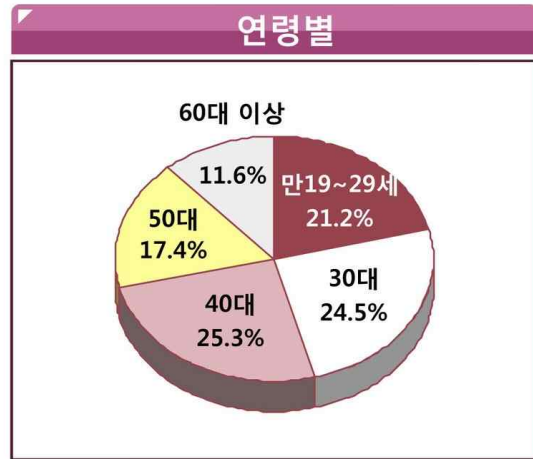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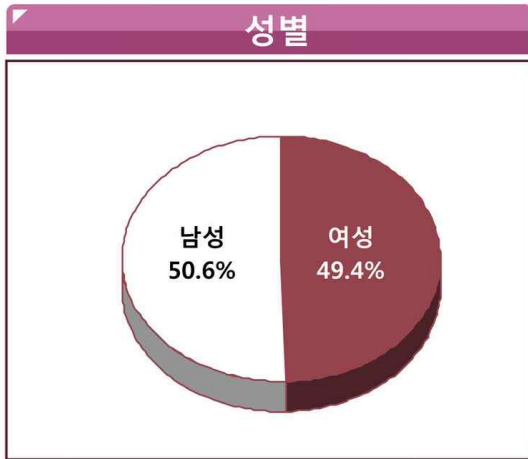
조사명	2009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
조사 대상	만 19세 이상의 남·여
조사 기간	2009년 9월 28일 ~ 29일
조사 지역	전국
조사 방법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전화조사 (Telephone Survey)
표본 추출	성/연령/지역별 인구수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 3.1%
표본수	1,000 명 (유효 표본)
조사 내용	<p>개신교회 신뢰 정도</p> <p>가장 신뢰하는 기관</p> <p>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p> <p>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p> <p>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p> <p>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사회활동</p> <p>호감이 가는 종교</p> <p>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p> <p>교회 활동 정보에 관한 출처</p>

I. 조사 개요



3. 응답자 특성

N= 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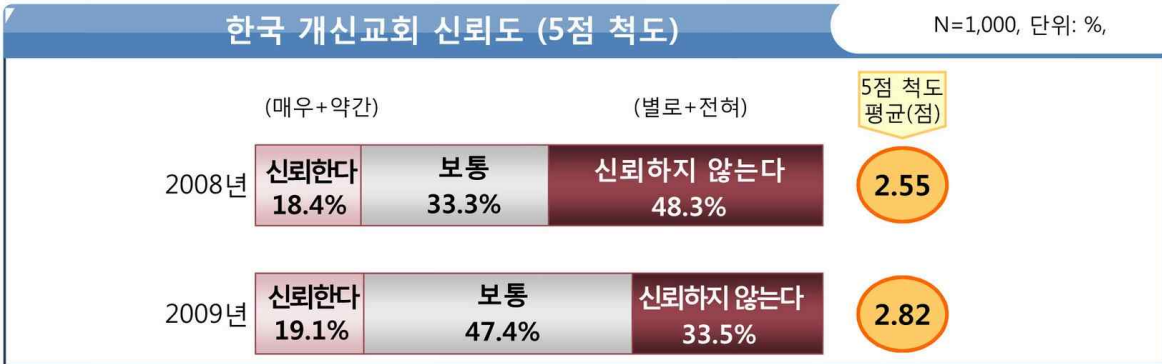
II. 조사 결과 분석

1. 한국교회 신뢰도

1-1. 전반적 신뢰도



-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정도는 19.1%로 지난 조사 대비 0.7% 포인트 상승함.
- 지난 조사 대비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폭(0.7%) 상승하였으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낮아, (48.3% → 33.5%), 전반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50대', '충청,전라권', '200만원 이하 저 소득층' 에서 한국 개신교회에 신뢰도가 높은 반면, 불교세가 강한 '대구/경북' 지역에서 신뢰도가 낮음.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						
구분		사례수	신뢰한다 (매우+약간)	보통이다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전혀)	계
전체	전체	(1000)	19.1	47.4	33.5	100.0
	성별					
	남자	(506)	17.7	48.2	34.1	100.0
	여자	(494)	20.5	46.6	32.9	100.0
연령	만19~29세	(212)	15.0	49.9	35.1	100.0
	30대	(245)	18.2	44.6	37.2	100.0
	40대	(253)	18.1	47.1	34.8	100.0
	50대	(174)	27.4	44.4	28.2	100.0
	60대 이상	(116)	18.0	53.6	28.4	100.0
	지역					
	서울	(221)	17.9	48.1	34.0	100.0
	인천/경기	(275)	21.2	48.4	30.3	100.0
	대전/충청	(99)	24.6	38.3	37.1	100.0
	광주/전라	(101)	23.8	37.8	38.4	100.0
	대구/경북	(107)	12.8	41.7	45.5	100.0
	부산/울산/경남	(165)	15.3	60.6	24.1	100.0
소득	강원	(33)	16.8	42.3	40.8	100.0
	200만원 이하	(154)	25.7	44.9	29.4	100.0
	201~300만원	(201)	18.0	48.7	33.4	100.0
	301~400만원	(279)	16.3	49.6	34.1	100.0
	401만원 이상	(282)	19.2	46.2	34.6	100.0
	모름/무응답	(84)	18.2	45.3	36.4	100.0
종교	개신교	(184)	56.4	37.0	6.6	100.0
	가톨릭교	(110)	13.3	50.5	36.1	100.0
	불교	(229)	20.3	49.5	30.2	100.0
	기타	(6)	0.0	62.3	37.7	100.0
	종교 없음	(471)	5.5	49.5	45.0	100.0

* 주) 위의 각 계층별 합계가 정확히 100.0%가 되지 않는 경우는 가중치 부여 후 통계적 Rounding Error 임



Copyright © 2009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글로벌리서치 ® All rights reserved

1. 한국교회 신뢰도



1-2. 전반적 신뢰도 - 신뢰하는 / 신뢰하지 않는 이유

- 개신교를 신뢰하는 이유로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응답이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선행의 올바른 가르침(14.4%)', '본인이 선택한 종교에 대한 믿음(13.7%)' 등이 주요 신뢰하는 이유로 응답됨.
- 반면, 개신교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 응답자의 32.2%가 교회지도자,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를 지적함.

2009년 신규문항(주관식)

한국 개신교회 신뢰 이유 / 비신뢰 이유

신뢰 이유 (N=191, 복수응답, 단위: %)

• 봉사 활동을 많이 해서	21.7%
• 선행의 올바른 가르침	14.4%
• 본인이 선택한 종교에 대한 믿음	13.6%
• 성경 말씀의 신뢰	8.3%
• 목사님 설교	8.1%
•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한 믿음	7.6%
• 모태신앙 이라서	6.1%
• 기독교 교리	6.1%
• 교인들의 올바른 삶	5.3%
• 목사님 들의 사회활동	2.7%
• 언행일치	2.2%
• 믿음으로 모여 단합할 수 있다	2.2%
• 정직하다	2.1%

비신뢰 이유 (N=336, 복수응답,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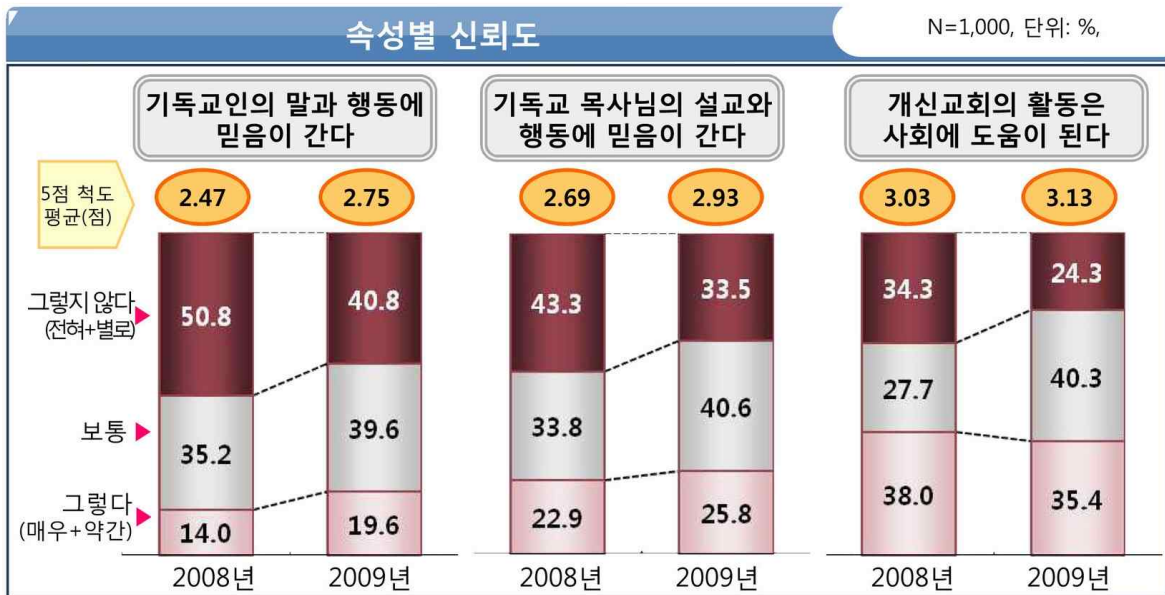
• 교회지도자,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	32.2%
• 교회 지도자의 무분별한 선교활동	10.0%
• 타 종교의 비방이 많아서	9.0%
• 교회 성장에만 관심을 둔다(기업화 현상)	7.4%
• 집단 이기주의 같은 느낌	7.4%
• 종교의 권력화	5.4%
• 종교 자체의 무관심	5.0%
• 설교 내용의 불신	4.8%
• 교인의 비도덕적 행동	3.7%
• 믿고 있는 종교가 달라서	3.4%
• 종교에 관한 믿음이 없어서	2.7%
• 언론에서 듣는 부정부패	2.5%
• 종파분열	2.3%

1. 한국교회 신뢰도

1-3. 속성별 신뢰도



- 개신교회에 대한 각 속성별 신뢰도를 보면, '개신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35.4%)' >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25.8%)' >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19.6%)' 순으로 나타남.
- 지난 조사 대비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 속성에 대한 신뢰도는 상승하였으나, '개신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속성에 대한 신뢰도는 소폭 감소하였음.
- 응답자 특성별로는 전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한국 개신교회에 대한 속성별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구분	사례수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		개신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그렇다	5점 척도(점)	그렇다	5점 척도(점)	그렇다	5점 척도(점)	
전체	(1000)	19.6	2.75	25.8	2.93	35.4	3.13	
성별	남자	(506)	17.7	2.70	22.2	2.82	33.4	3.06
	여자	(494)	21.7	2.81	29.6	3.04	37.5	3.19
연령	만19~29세	(212)	16.3	2.70	23.7	2.87	27.9	2.96
	30대	(245)	16.7	2.68	23.8	2.88	32.9	3.05
	40대	(253)	20.3	2.72	25.0	2.92	37.8	3.19
	50대	(174)	27.3	2.93	34.5	3.09	49.4	3.40
	60대 이상	(116)	19.1	2.80	22.8	2.92	28.1	3.05
종교	개신교	(184)	54.3	3.61	68.6	3.92	71.1	3.98
	가톨릭교	(110)	15.8	2.66	17.1	2.72	32.0	3.03
	불교	(229)	21.1	2.81	24.9	2.96	32.1	3.11
	기타	(6)	0.0	1.95	0.0	2.11	19.1	2.44
	종교 없음	(471)	6.6	2.42	11.9	2.59	24.1	2.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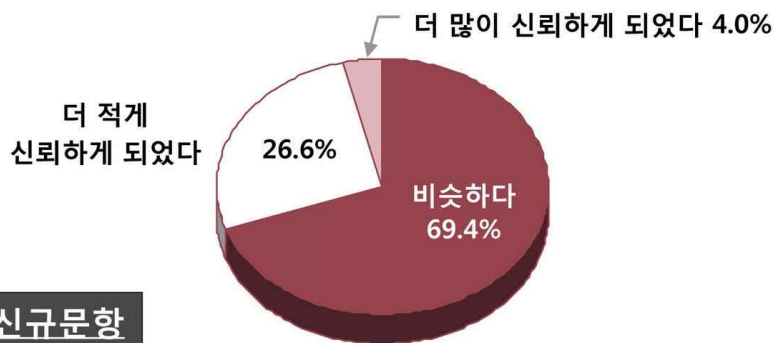
1. 한국교회 신뢰도

1-4. 지난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 지난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은 결과, 69.4%는 '비슷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는 응답자가 26.6%로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4.0%)보다 높게 나타남.
- 특히, 20~30대 젊은 층에서 과거 대비 신뢰도가 하락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최근 개신교인 정체 현상에 대해 젊은 층의 개신교 유입이 활발하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음
- 개신교인 중 18%가 지난 2~3년 전 대비 현 개신교회에 대해 신뢰도가 점점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 신뢰도 변화

N=1,000, 단위: %



2009년 신규문항

한국 개신교회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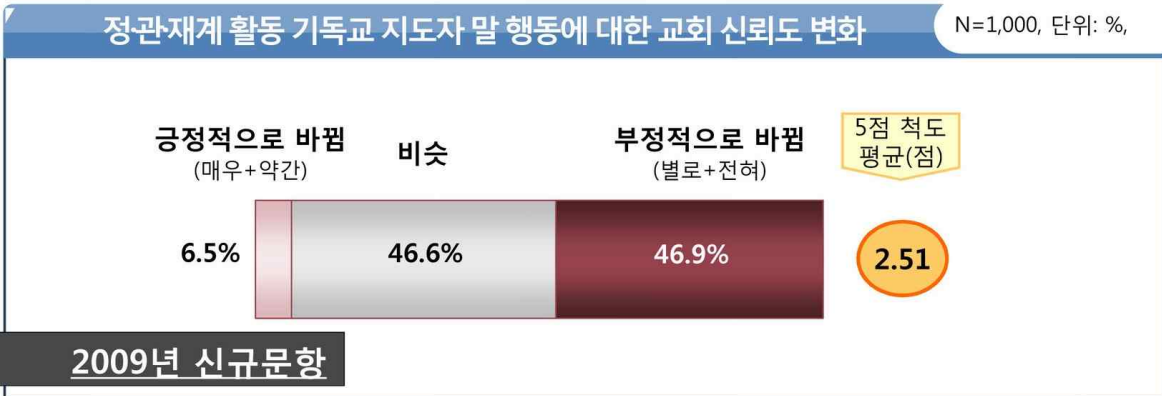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	비슷하다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	계
전체	(1000)	26.6	69.4	4.0	100.0
성별	남자	(506) 28.6	68.0	3.4	100.0
	여자	(494) 24.5	70.9	4.6	100.0
연령	만19~29세	(212) 27.6	70.8	1.6	100.0
	30대	(245) 35.5	60.6	3.8	100.0
	40대	(253) 23.3	70.5	6.2	100.0
	50대	(174) 21.9	74.9	3.2	100.0
	60대 이상	(116) 19.9	74.7	5.4	100.0
지역	서울	(221) 28.1	68.6	3.3	100.0
	인천 경기	(275) 30.2	66.2	3.6	100.0
	대전 충청	(99) 17.7	77.5	4.8	100.0
	광주 전라	(101) 40.2	49.8	10.0	100.0
	대구 경북	(107) 27.4	70.1	2.6	100.0
	부산 울산 경남	(165) 16.2	80.9	2.9	100.0
	강원	(33) 20.3	77.3	2.4	100.0
종교	개신교	(184) 17.9	70.7	11.3	100.0
	가톨릭교	(110) 31.2	68.8	0.0	100.0
	불교	(229) 25.7	70.3	4.0	100.0
	기타	(6) 16.4	67.6	16.0	100.0
	종교 없음	(471) 29.5	68.6	2.0	100.0

1. 한국교회 신뢰도



1-5. 정관재계 활동 기독교 지도자 말 행동에 대한 교회 신뢰도 변화

- 정·관·재계 등에서 활동하는 기독교 지도자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 변화를 묻은 결과, 응답자의 46.9%가 부정적으로 바뀌었으며, 긍정적으로 바뀐 응답자는 6.5%임.
- 특히 '남성', '30, 40대 연령층', '광주'지역에서 교회 신뢰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변화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
- 개신교인들의 경우 오히려 불교인들보다도 개신교 지도자들에 대해 실망감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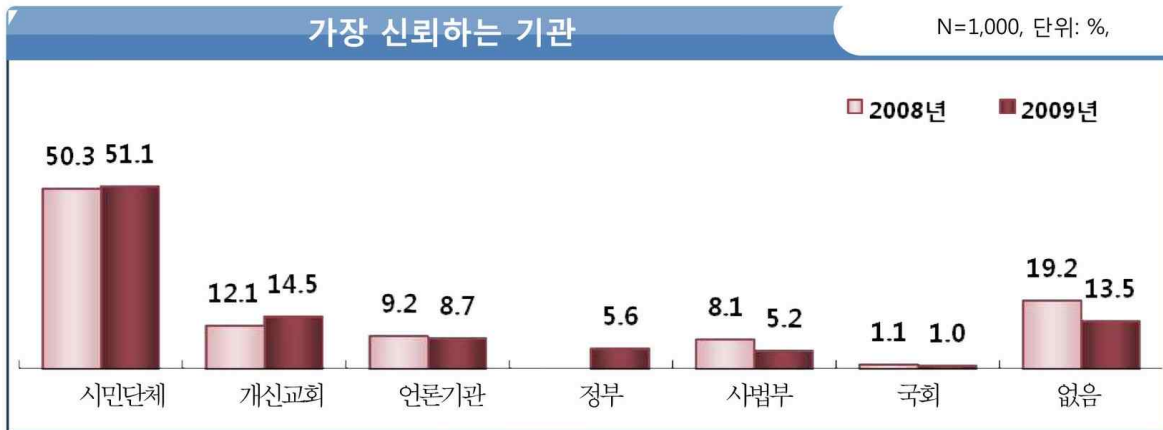
정·관·재계 활동 기독교 지도자 말 행동에 대한 교회 신뢰도 변화						
구분		사례수	긍정적으로 바뀜 (매우+약간)	비슷	부정적으로 바뀜 (별로+전혀)	계
	전체	(1000)	6.5	46.6	46.9	100.0
성별	남자	(506)	6.3	41.2	52.5	100.0
	여자	(494)	6.6	52.2	41.2	100.0
연령	만19~29세	(212)	5.0	50.6	44.4	100.0
	30대	(245)	5.2	43.4	51.4	100.0
	40대	(253)	6.4	41.7	51.8	100.0
	50대	(174)	10.0	46.9	43.1	100.0
	60대 이상	(116)	6.4	56.6	37.0	100.0
지역	서울	(221)	5.7	40.3	54.0	100.0
	인천/경기	(275)	5.4	48.0	46.6	100.0
	대전/충청	(99)	7.9	55.3	36.8	100.0
	광주/전라	(101)	13.8	28.8	57.3	100.0
	대구/경북	(107)	7.7	60.9	31.4	100.0
	부산/울산/경남	(165)	3.4	50.0	46.5	100.0
종교	개신교	(184)	12.0	45.7	42.4	100.0
	가톨릭교	(110)	8.1	43.3	48.5	100.0
	불교	(229)	7.1	54.9	38.0	100.0
	기타	(6)	0.0	37.2	62.8	100.0
	종교 없음	(471)	3.6	43.9	52.5	100.0

2. 신뢰 기관



2-1. 가장 신뢰하는 기관 평가

-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시민단체(51.1%) > 개신교회(14.5%) > 언론기관(8.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작년 조사 대비 '개신교회'가 12.1%에서 14.5%로 2.4% 포인트 상승하였고, 새로 추가된 정부는 5.6%의 응답율을 보임.
- 개신교인들 중 개신교를 가장 신뢰하는 비율이 47.0%로 절반에 약간 못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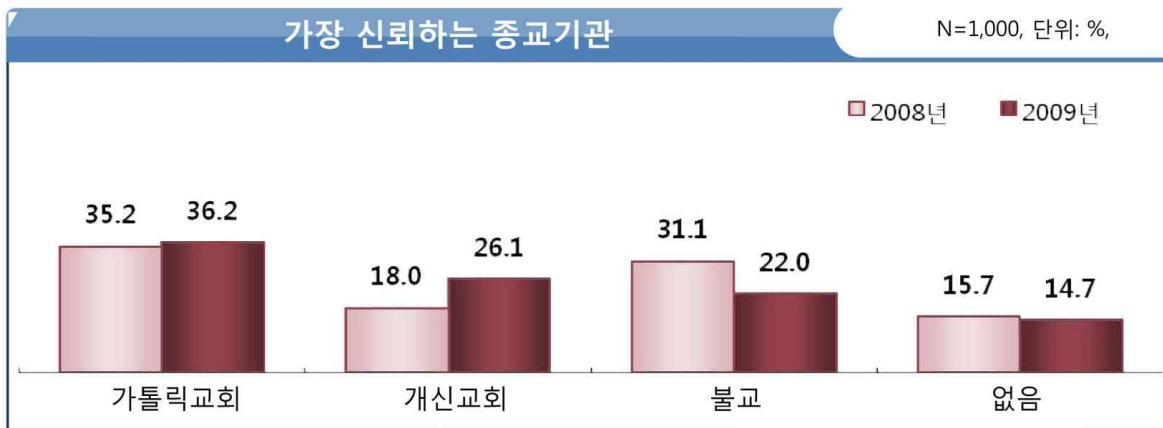
		가장 신뢰하는 기관							
구분		사례수	시민단체	개신교회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국회	없음
전체	전체	(1000)	51.1	14.5	8.7	5.6	5.2	1.0	13.5
	성별								
	남자	(506)	49.1	12.8	10.1	5.9	5.8	0.6	14.9
	여자	(494)	53.1	16.2	7.2	5.3	4.5	1.4	12.0
연령	만19~29세	(212)	55.9	11.0	7.3	6.8	9.6	1.0	8.1
	30대	(245)	61.5	12.0	9.7	1.4	1.8	1.1	12.1
	40대	(253)	55.0	12.3	9.8	3.9	4.2	0.4	13.9
	50대	(174)	38.9	24.4	6.0	5.6	5.6	0.6	18.3
	60대 이상	(116)	30.0	16.0	10.4	16.1	5.6	2.7	17.7
종교	개신교	(184)	32.8	47.0	3.5	4.0	3.5	0.0	8.5
	가톨릭교	(110)	59.9	4.8	11.3	3.5	2.3	0.9	17.4
	불교	(229)	45.0	16.4	7.7	7.3	6.4	1.5	14.4
	기타	(6)	62.8	0.0	0.0	37.2	0.0	0.0	0.0
	종교 없음	(471)	58.9	3.3	10.6	5.5	6.0	1.2	14.2

2. 신뢰 기관

2-2.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평가



-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는 '가톨릭교회(36.2%)'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신교회(26.1%)' > '불교(22.0%)' 순으로 높게 나타남.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구분		사례수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불교(사찰)	없음	모름/무응답	계
성별	전체	(1000)	36.2	26.1	22.0	14.7	1.0	100.0
	남자	(506)	33.7	26.0	20.8	17.6	1.9	100.0
성별	여자	(494)	38.7	26.2	23.3	11.7	0.1	100.0
	만19~29세	(212)	29.4	27.8	22.0	18.8	2.0	100.0
연령	30대	(245)	31.3	24.3	27.4	16.3	0.6	100.0
	40대	(253)	43.1	26.9	15.2	14.5	0.4	100.0
	50대	(174)	44.9	29.7	16.4	7.9	1.1	100.0
	60대 이상	(116)	30.5	19.9	34.2	14.5	0.9	100.0
종교	개신교	(184)	13.1	81.9	1.2	3.5	0.3	100.0
	가톨릭교	(110)	93.2	1.9	2.0	2.9	0.0	100.0
	불교	(229)	22.3	25.1	45.5	5.8	1.3	100.0
	기타	(6)	16.4	0.0	46.4	37.2	0.0	100.0
	종교 없음	(471)	38.9	10.8	23.1	25.8	1.3	100.0

3. 종교 관련 인식

3-1. 호감 종교



-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가톨릭교(33.7%)'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신교(28.0%)' > '불교(26.4%)' 순으로 나타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 보면, 40대 - 가톨릭교, 50대 - 개신교/가톨릭, 60대 - 불교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비율이 높음
- 무종교인의 경우 개신교 호감도가 14.2%로 불교/가톨릭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을 보임



		호감 종교								
구분		사례수	가톨릭교	개신교	불교	없음	원불교	유교	모름/ 무응답	계
	전체	(1000)	33.7	28.0	26.4	9.9	0.9	0.8	0.2	100.0
성별	남자	(506)	32.1	28.1	25.1	12.3	1.3	1.2	0.0	100.0
	여자	(494)	35.4	28.0	27.8	7.4	0.4	0.4	0.4	100.0
연령	만19~29세	(212)	28.0	29.6	26.4	14.2	1.3	0.0	0.5	100.0
	30대	(245)	33.0	26.4	28.9	9.2	0.9	1.6	0.0	100.0
	40대	(253)	39.3	27.9	21.7	9.6	0.9	0.3	0.4	100.0
	50대	(174)	37.1	31.5	21.6	8.3	0.9	0.6	0.0	100.0
	60대 이상	(116)	28.6	23.9	39.0	6.5	0.0	1.9	0.0	100.0
지역	서울	(221)	36.7	29.3	25.4	7.2	0.5	0.0	0.9	100.0
	인천/경기	(275)	38.6	34.0	17.4	8.3	0.4	1.2	0.0	100.0
	대전/충청	(99)	27.5	31.1	26.6	14.8	0.0	0.0	0.0	100.0
	광주/전라	(101)	25.3	30.3	30.0	10.2	4.2	0.0	0.0	100.0
	대구/경북	(107)	35.4	18.4	38.2	6.3	1.0	0.7	0.0	100.0
	부산/울산/경남	(165)	29.8	22.1	31.2	14.5	0.7	1.6	0.0	100.0
	강원	(33)	32.3	14.5	35.7	13.7	0.0	3.9	0.0	100.0
종교	개신교	(184)	11.1	85.0	2.8	1.1	0.0	0.0	0.0	100.0
	가톨릭교	(110)	89.6	2.2	7.5	0.8	0.0	0.0	0.0	100.0
	불교	(229)	22.6	23.9	50.8	1.3	1.0	0.3	0.0	100.0
	기타	(6)	32.4	0.0	0.0	0.0	46.4	21.3	0.0	100.0
	종교 없음	(471)	35.0	14.2	28.6	19.7	0.8	1.3	0.4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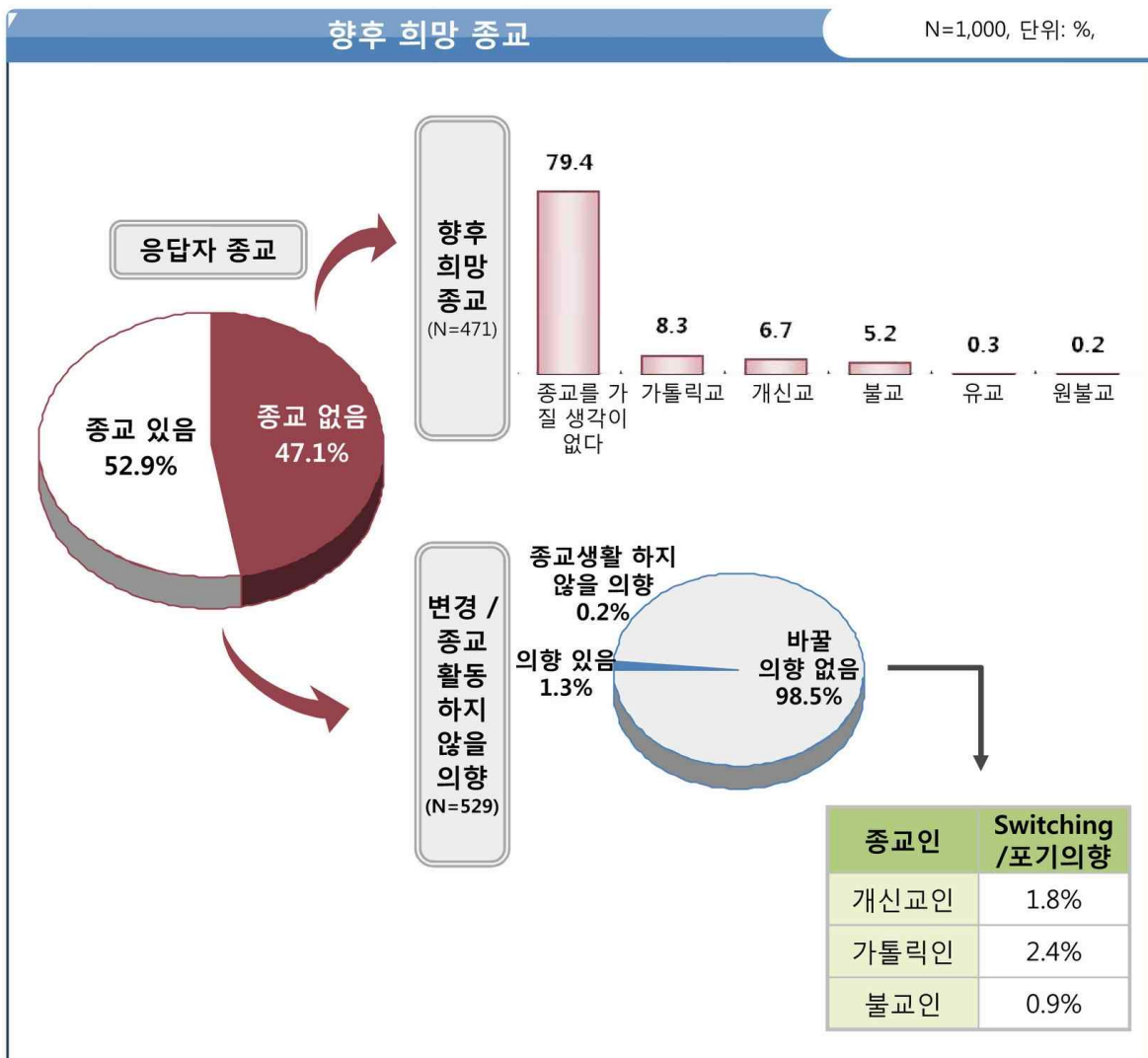
3. 종교 관련 인식

3-2. 향후 희망 종교



- 무종교자 중 79.4%는 향후에도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으며, 가질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에서는 가톨릭교가 8.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기독교(6.7%)' > '불교(5.2%)' 순으로 나타남.
- 유종교자 529명 중 종교 스위칭 의향을 묻은 결과, 98.5%가 바꿀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2009년 신규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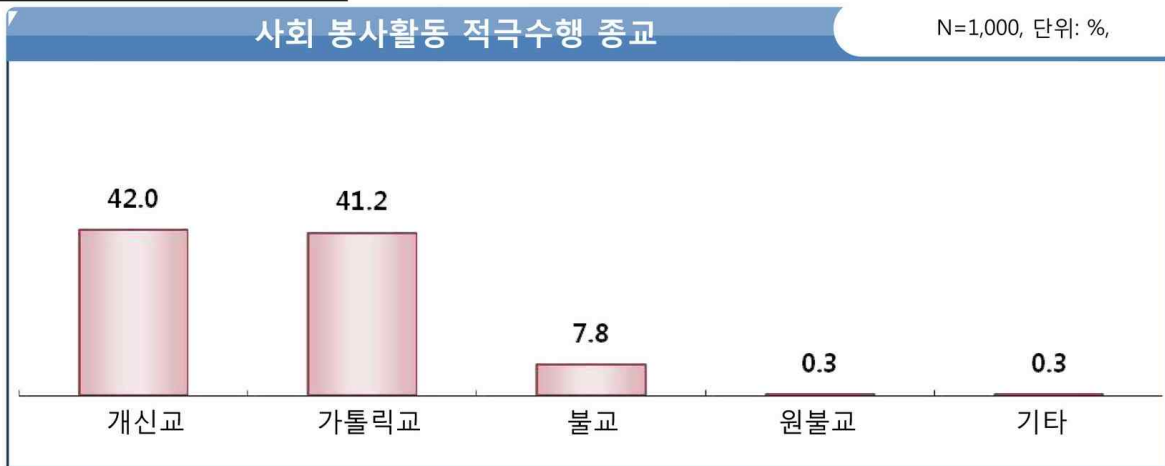
3. 종교 관련 인식



3-3. 사회 봉사활동 적극수행 종교

- 사회 봉사활동을 적극 수행하고 있고, 잘 하고 있는 종교를 묻은 결과, 개신교가 4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특히 20대 연령층에서 개신교에 대한 응답이 높으며, 40~50대는 가톨릭교, 60대 이상에서는 불교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연령층에 따라 인식 정도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음.
- 불교세가 강한 '대구/경북'지역과 '강원' 지역에서 기독교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어 있음.

2009년 신규문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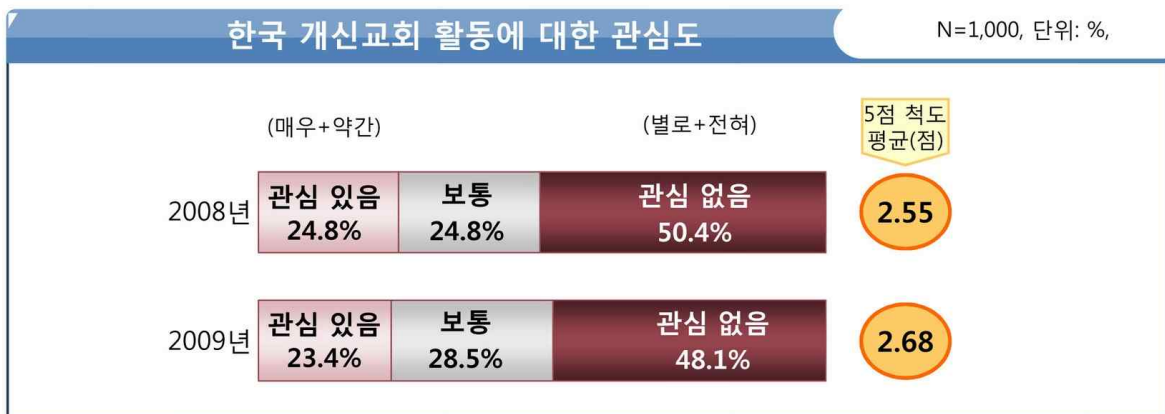
사회 봉사활동 적극수행 종교										
구분		사례수	개신교	가톨릭교	불교	원불교	기타	모름/ 무응답	없음	계
	전체	(1000)	42.0	41.2	7.8	0.3	0.3	7.1	1.2	100.0
성별	남자	(506)	43.0	39.9	6.8	0.7	0.7	7.7	1.3	100.0
	여자	(494)	41.0	42.5	8.9	0.0	0.0	6.5	1.2	100.0
연령	만19~29세	(212)	49.3	35.2	6.6	0.0	0.0	7.8	1.0	100.0
	30대	(245)	45.1	41.8	5.2	0.0	0.0	6.8	1.2	100.0
	40대	(253)	39.1	46.5	6.5	0.5	0.0	6.7	0.7	100.0
	50대	(174)	39.1	47.0	5.3	1.2	0.0	6.4	1.0	100.0
	60대 이상	(116)	33.0	30.4	22.2	0.0	2.9	8.3	3.1	100.0
지역	서울	(221)	40.7	45.6	6.5	0.0	0.5	4.3	2.3	100.0
	인천/경기	(275)	48.2	41.2	4.2	0.0	0.3	6.1	0.0	100.0
	대전/충청	(99)	41.4	33.4	8.3	0.0	0.0	12.3	4.6	100.0
	광주/전라	(101)	41.3	40.9	11.2	1.6	0.0	3.5	1.6	100.0
	대구/경북	(107)	35.9	46.3	11.3	0.0	0.0	6.6	0.0	100.0
	부산/울산/경남	(165)	42.5	37.1	7.8	1.0	0.0	10.9	0.6	100.0
	강원	(33)	20.9	37.9	24.1	0.0	3.9	13.2	0.0	100.0
종교	개신교	(184)	72.8	25.3	0.0	0.3	0.0	1.5	0.0	100.0
	가톨릭교	(110)	10.7	84.2	1.0	0.0	0.0	4.1	0.0	100.0
	불교	(229)	41.6	31.0	19.0	0.5	0.5	6.5	0.9	100.0
	기타	(6)	35.1	43.6	0.0	0.0	21.3	0.0	0.0	100.0
	종교 없음	(471)	37.6	42.2	7.1	0.3	0.2	10.4	2.2	100.0

3. 종교 관련 인식



3-4. 한국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도

- 한국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는 23.4% 나타남.
- 특히 '여성', '50대 연령층'에서 관심도가 높음.
- 반면,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타 지역 대비 관심도가 떨어짐.
- 지난 조사 대비 큰 차이 보이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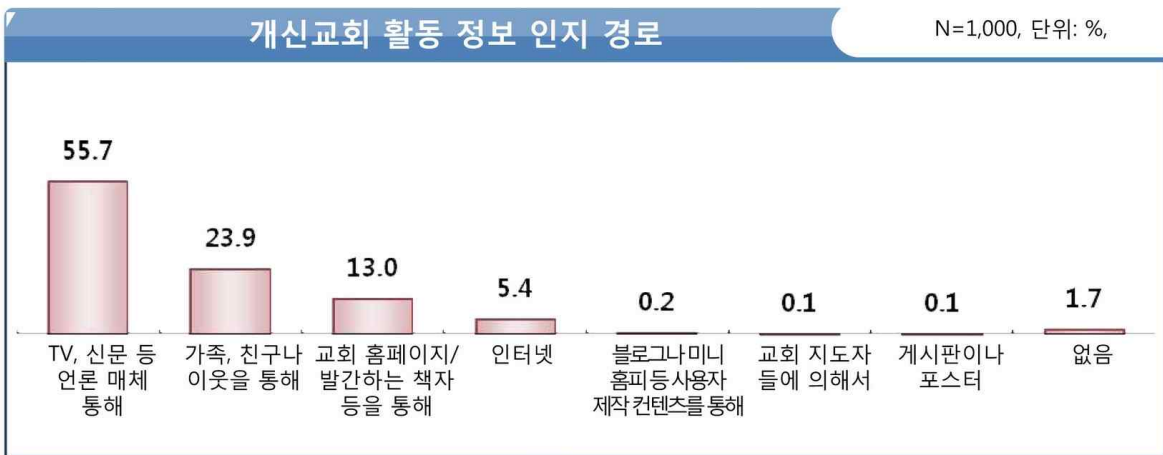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관심 있다 (매우+약간)	보통이다	관심 없다 (별로+전혀)	개
전체	(1000)	23.4	28.5	48.1	100.0
성별	남자 (506)	20.0	28.4	51.7	100.0
	여자 (494)	26.9	28.5	44.6	100.0
연령	만19~29세 (212)	16.1	24.3	59.6	100.0
	30대 (245)	20.3	27.6	52.1	100.0
	40대 (253)	26.1	31.7	42.2	100.0
	50대 (174)	32.5	29.6	37.9	100.0
	60대 이상 (116)	23.5	28.9	47.6	100.0
지역	서울 (221)	23.4	26.6	50.0	100.0
	인천/경기 (275)	27.6	29.2	43.3	100.0
	대전/충청 (99)	28.0	28.9	43.1	100.0
	광주/전라 (101)	25.4	30.5	44.1	100.0
	대구/경북 (107)	19.3	39.5	41.2	100.0
	부산/울산/경남 (165)	17.2	23.6	59.1	100.0
	강원 (33)	12.6	15.5	71.9	100.0
종교	개신교 (184)	67.8	27.4	4.8	100.0
	가톨릭교 (110)	19.8	40.5	39.7	100.0
	불교 (229)	23.9	28.1	48.0	100.0
	기타 (6)	16.0	0.0	84.0	100.0
	종교 없음 (471)	6.7	26.6	66.7	100.0

3. 종교 관련 인식

3-5. 개신교회 활동 정보 인지 경로



- 교회 활동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는 경로로 'TV, 신문 등 언론 매체'가 5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가족, 친구나 이웃을 통해(23.9%)' > '교회 홈페이지/발간하는 책자 등을 통해(13%)'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남성, 30대 연령층에서 TV,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개신교회 활동 정보를 인지하는 비율이 높은 특성을 보임.



구분	사례수	TV, 신문 등 언론 매체 통해	가족, 친구 이웃 통해	교회 홈페이지/발간 책자 등 통해	인터넷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사용자 제작 콘텐츠 통해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게시판이나 포스터	없음	계	
전체	(1000)	55.7	23.9	13.0	5.4	0.2	0.1	0.1	1.7	100.0	
성별	남자	(506)	58.5	19.7	12.4	7.1	0.4	0.0	0.2	1.7	100.0
	여자	(494)	52.8	28.2	13.6	3.6	0.0	0.2	0.0	1.6	100.0
연령	만19~29세	(212)	55.9	20.9	10.4	11.1	0.0	0.0	0.0	1.7	100.0
	30대	(245)	59.5	22.2	12.6	5.3	0.0	0.0	0.0	0.5	100.0
	40대	(253)	58.0	22.5	14.6	2.7	0.3	0.0	0.0	1.8	100.0
	50대	(174)	50.8	25.1	17.5	4.9	0.6	0.0	0.0	1.1	100.0
	60대 이상	(116)	49.5	34.3	8.6	1.4	0.0	0.7	0.8	4.7	100.0
종교	개신교	(184)	32.7	13.3	43.8	9.8	0.0	0.4	0.0	0.0	100.0
	가톨릭교	(110)	62.4	28.3	5.0	3.5	0.0	0.0	0.0	0.9	100.0
	불교	(229)	54.2	26.5	14.3	3.4	0.3	0.0	0.0	1.3	100.0
	기타	(6)	80.9	19.1	0.0	0.0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471)	63.5	25.8	2.4	5.1	0.2	0.0	0.2	2.7	100.0

3. 종교 관련 인식

3-6. 기독교 예수 가르침/행동에 대한 신뢰도



- 기독교 관련 예수 가르침/행동에 대한 신뢰 정도는 3.41점(5점 평균)으로 나타남.
- 전체 응답자 중 46.6%가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2.5%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 보면, 여성, 50대, 인천/경기 지역에서 신뢰도가 높게 형성되어 있음.

2009년 신규문항

기독교 예수 가르침/행동에 대한 신뢰도

N=1,000,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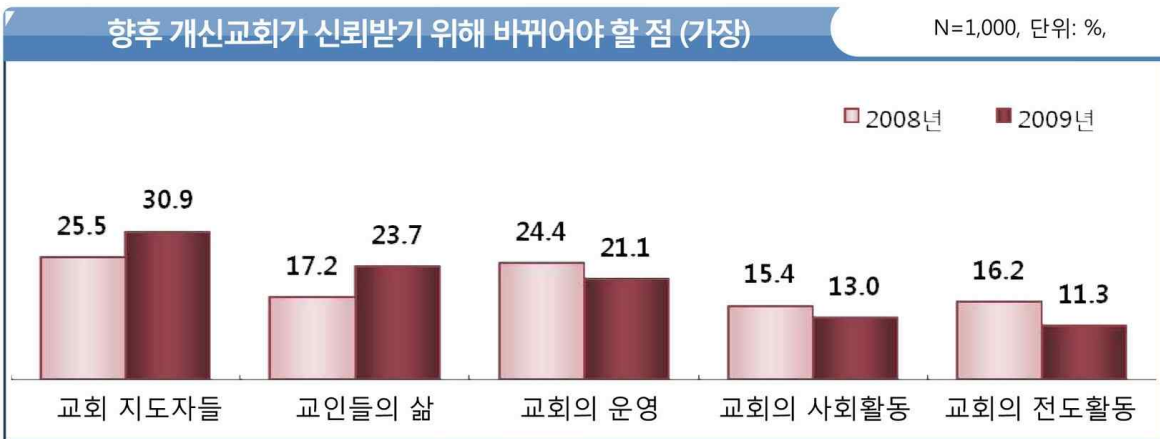
기독교 예수 가르침/행동에 대한 신뢰도						
구분		사례수	신뢰한다 (매우+약간)	보통이다	신뢰하지 않는다 (별로+전혀)	계
전체	전체	(1000)	46.6	31.0	22.4	100.0
	성별					
	남자	(506)	41.6	33.3	25.1	100.0
	여자	(494)	51.7	28.7	19.6	100.0
연령	만19~29세	(212)	34.4	34.2	31.4	100.0
	30대	(245)	43.2	37.9	18.9	100.0
	40대	(253)	50.1	27.8	22.2	100.0
	50대	(174)	60.0	21.3	18.6	100.0
	60대이상	(116)	47.8	32.6	19.6	100.0
지역	서울	(221)	49.9	34.0	16.1	100.0
	인천/경기	(275)	54.8	27.5	17.7	100.0
	대전/충청	(99)	51.8	25.6	22.6	100.0
	광주/전라	(101)	39.5	31.9	28.7	100.0
	대구/경북	(107)	40.2	34.2	25.6	100.0
	부산/울산/경남	(165)	38.5	34.1	27.4	100.0
	강원	(33)	22.2	29.5	48.3	100.0
종교	개신교	(184)	92.3	7.7	0.0	100.0
	가톨릭교	(110)	62.2	29.9	7.9	100.0
	불교	(229)	45.2	34.0	20.7	100.0
	기타	(6)	16.0	35.6	48.5	100.0
	종교 없음	(471)	26.1	38.9	35.0	100.0

4. 개신교회가 할 일



4-1.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

- 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으로 응답자의 30.9%(가장 기준)가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지적함.
- 그 다음으로 '교인들의 삶(23.7%)' > '교회의 운영(21.1%)' 순으로 지적됨.
-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 보면 남성, 50대 연령층에서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이 높게 나타남.
- 지난 조사에 이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지적이 높게 나타났으며, '교인들의 삶'에 대한 지적이 증가한 특성을 보임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바뀌어야 할 점 (가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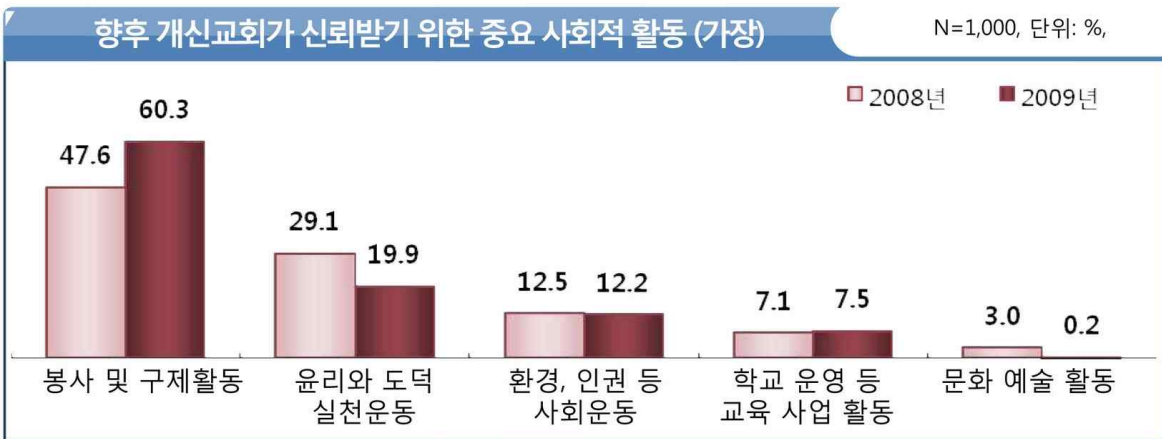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의 삶	교회의 운영	교회의 사회활동	교회의 전도활동	계	
전체	(1000)	30.9	23.7	21.1	13.0	11.3	100.0	
성별	남자	(506)	33.0	21.2	24.0	12.1	9.6	100.0
	여자	(494)	28.7	26.3	18.2	13.8	13.1	100.0
연령	만19~29세	(212)	24.9	21.5	22.7	14.0	16.9	100.0
	30대	(245)	28.6	26.4	21.4	11.8	11.7	100.0
	40대	(253)	34.2	24.8	23.2	11.2	6.7	100.0
	50대	(174)	34.7	23.1	19.5	13.6	9.2	100.0
	60대 이상	(116)	33.7	20.6	15.6	16.5	13.6	100.0
종교	개신교	(184)	35.5	29.1	16.7	10.6	8.1	100.0
	가톨릭교	(110)	36.2	18.8	27.2	9.3	8.5	100.0
	불교	(229)	28.4	25.2	17.5	13.0	15.9	100.0
	기타	(6)	19.1	21.3	0.0	32.4	27.2	100.0
	종교 없음	(471)	29.2	22.1	23.5	14.4	10.8	100.0

4. 개신교회가 할 일



4-2.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한 중요 사회적 활동

-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활동으로 1순위는 '봉사 및 구제활동 (60.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윤리와 도덕 실천운동(19.9%)', '환경,인권 등 사회운동(12.2%)' 순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60대 이상 연령층에서 '봉사 및 구제활동'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났고, 30대 연령층에서는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20대 연령층에서는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에 대한 응답이 높게 나타남.
- 지난 조사에 이어, 이번에도 '봉사 및 구제활동'이 13% 정도 상승하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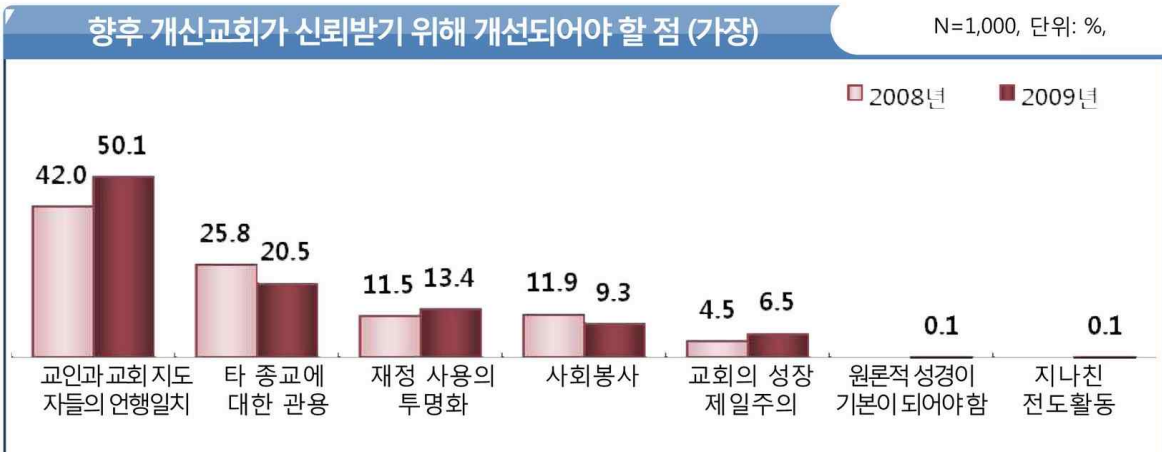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한 중요 사회적 활동 (가장 기준)								
구분		사례수	봉사 및 구제활동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	학교운영등 교육사업활동	문화 예술 활동	계
전체	전체	(1000)	60.3	19.9	12.2	7.5	0.2	100.0
	남자	(506)	58.7	20.6	11.7	8.9	0.2	100.0
성별	여자	(494)	61.9	19.2	12.6	6.2	0.1	100.0
	만19~29세	(212)	59.6	17.0	11.6	11.8	0.0	100.0
연령	30대	(245)	54.8	21.7	15.7	7.5	0.3	100.0
	40대	(253)	58.4	22.5	12.8	6.3	0.0	100.0
	50대	(174)	64.0	19.9	9.7	6.0	0.4	100.0
	60대 이상	(116)	71.2	15.8	8.2	4.8	0.0	100.0
	개신교	(184)	69.0	16.5	7.6	6.1	0.8	100.0
종교	가톨릭교	(110)	49.9	30.6	12.5	7.0	0.0	100.0
	불교	(229)	60.3	17.3	15.3	7.1	0.0	100.0
	기타	(6)	48.5	51.5	0.0	0.0	0.0	100.0
	종교 없음	(471)	59.4	19.6	12.5	8.5	0.0	100.0

4. 개신교회가 할 일



4-3.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 앞으로 한국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응답자 50.1%가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를 지적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타 종교에 대한 관용(20.5%)' > '재정 사용의 투명화(13.4%)' 순으로 지적함.
- 지난 조사와 비교 결과,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가 8% 포인트 상승하였음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 (가장 기준)

구분	사례수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 일치	타 종교에 대한 관용	재정 사용의 투명화	사회봉사	교회의 성장 제일주의	원론적 성경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지나친 전도활동	계
전체	(1000)	50.1	20.5	13.4	9.3	6.5	0.1	0.1	100.0
성별	남자 (506)	51.1	20.0	12.7	8.5	7.6	0.2	0.0	100.0
	여자 (494)	49.0	21.2	14.2	10.1	5.4	0.0	0.1	100.0
연령	만19~29세 (212)	41.3	27.6	16.3	9.9	4.9	0.0	0.0	100.0
	30대 (245)	51.1	20.8	12.9	8.3	6.6	0.3	0.0	100.0
	40대 (253)	55.5	18.9	12.0	6.8	6.5	0.0	0.3	100.0
	50대 (174)	51.7	18.2	12.3	11.1	6.7	0.0	0.0	100.0
	60대 이상 (116)	49.6	14.2	14.1	13.1	9.0	0.0	0.0	100.0
종교	개신교 (184)	54.5	10.2	15.4	7.5	11.8	0.4	0.0	100.0
	가톨릭교 (110)	42.2	26.3	18.2	7.2	6.1	0.0	0.0	100.0
	불교 (229)	51.1	21.3	11.7	10.6	4.9	0.0	0.3	100.0
	기타 (6)	56.8	16.0	27.2	0.0	0.0	0.0	0.0	100.0
	종교 없음 (471)	49.6	22.9	12.2	9.9	5.4	0.0	0.0	100.0

ID			
----	--	--	--

2009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GRI 0909148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 리서치 면접원 ○○○입니다.
본 설문조사는 한국 종교가 얼마나 사회로부터 신뢰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처리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질문에 대한 귀하의 솔직하고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 지역 :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7. 울산 8. 경기 9. 강원 10. 충북 11. 충남 12. 전북 13. 전남 14. 경북 15. 경남</p> <p>■ 성별 : ① 남자 ② 여자</p> <p>■ 연령 : 만 _____ 세 (만19세 미만 면접중단) ① 만19~29세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p>	<p>2009년 9월</p> <p>주) 글 로 벌 리 서 치 연 구 원 : 최 석 석 실 사 연 구 원 : 이 지 현 부장 주 소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55-32 전 화 02) 3438-1700</p>
----------------------------------------------------------------------------------------------------------------------------------------------------------------------------------------------------------------------------------------------------	-----------------------------------------------------------------------------------------------------------------------------------

문1. ○○○님께서 다음 사항에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지 말씀해주시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약간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입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1)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1-2)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	①	②	③	④	⑤
1-3) 개신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	①	②	③	④	⑤
1-4) 전체적으로 한국개신교회를 신뢰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2-1. [문1-4에서 4,5 응답자] ○○○님께서 개신교회를 신뢰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_____

문2-2. [문1-4에서 1,2 응답자] ○○○님께서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_____

문3.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개신교회에 대한 ○○○님의 신뢰도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 ①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 ② 비슷하다 ③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

문4. ○○○님께서 한국(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_____ 그 다음 _____

- ① 교회의 운영 ② 교회 지도자들 ③ 교인들의 삶 ④ 교회의 사회활동 ⑤ 교회의 전도활동 ⑥ 기타 _____

문5. ○○○님께서 한국(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다음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_____ 그 다음 _____

- ① 교인과 교회지도자들의 연행일치 ② 타 종교에 대한 관용 ③ 사회봉사
④ 재정사용의 투명화 ⑤ 교회의 성장제일주의 ⑥ 기타 _____

문6. ○○○님께서 다음의 사회적 활동 중에서 한국(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가장 _____ 그 다음 _____

- ① 봉사 및 구제활동 ② 환경,인권 등 사회운동 ③ 학교 운영 등 교육 사업 활동
④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 ⑤ 문화 예술 활동 ⑥ 기타 _____

문7. ○○○님께서 정치계, 관계, 재계 등에서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읽어줄 것)

- ① 매우 긍정적으로 바뀜 ② 약간 긍정적으로 바뀜 ③ 비슷하다
④ 약간 부정적으로 바뀜 ⑤ 매우 부정적으로 바뀜

문8-1. ○○○님께서 다음 중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무엇입니까?(하나만)

- ① 개신교회 ② 정부 ③ 국회 ④ 사법부 ⑤ 언론기관 ⑥ 시민단체

문8-2. 그럼, 다음의 종교기관 중에서는요?(하나만)

- ① 개신교회 ② 가톨릭교회 ③ 불교(사찰)

문9. ○○○님께서 다음 중 어느 종교가 가장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하나만)

- ① 기독교(개신교) ② 가톨릭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유교 ⑥ 기타_____

문10. ○○○님께서 어떤 종교를 믿고 계십니까?

- ① 기독교(개신교) ② 가톨릭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유교 ⑥ 기타_____
⑦ 종교없음

문11-1. [문10에서 ⑦ 종교 없는 사람만]

○○○님께서 앞으로 종교를 가질 생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떤 종교를 가질 생각이십니까?

- ① 기독교(개신교) ② 가톨릭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유교 ⑥ 기타_____
⑨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다

문11-2. [문10에서 종교 있는 사람만]

○○○님께서 현재 종교를 바꿀 의향이나 종교생활을 하지 않을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다 -> 문11-3으로 ②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을 의향이 있다 ③ 바꿀 의향이 없다

문11-3. [문11-2에서 ①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는 응답자] 어느 종교로 바꾸고 싶으십니까?

- ① 기독교(개신교) ② 가톨릭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유교 ⑥ 기타_____

문12. [전체에게]

○○○님께서 종교를 믿는 것에 관계없이 가장 호감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 ① 기독교(개신교) ② 가톨릭교 ③ 불교
④ 원불교 ⑤ 유교 ⑥ 기타_____

문13. ○○○님께서 한국(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관심이 있습니까?

- ① 매우 관심이 있다 ② 관심이 있다 ③ 보통이다 ④ 관심이 없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문14. ○○○님께서 (교인의 경우,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이외의) 개신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서 알게 됩니까? (하나만)

- ① 교회 홈페이지나 교회에서 발간하는 책자 등을 통하여 안다
- ② TV, 신문 등 언론 매체를 통해 안다
- ③ 가족, 친구나 이웃을 통해 안다
- ④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통해 안다
- ⑤ 인터넷(뉴스 포털, 토론방 등)
- ⑥ 기타 _____

문15. ○○○님께서 기독교를 믿는 것과 관계없이 ○○○님이 기독교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믿음이 가십니까?

- ① 매우 믿음이 간다 ② 약간 믿음이 간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믿음이 가지 않는다 ⑤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다

※ 통계처리를 위해 몇 가지만 여쭙어 보겠습니다.

DQ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판매/영업/서비스직
-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사무/관리/전문직 ⑥ 가정주부
- ⑦ 학생 ⑧ 무직/퇴직/기타 ⑨ 모름/ 무응답

DQ2. ○○○님 댁 식구들이 벌어오는 가구의 월 평균 총 가구소득은요? 금융소득까지 포함해서요.

- ① 100만원 이하 ② 101~200만원 이하 ③ 201~300만원 이하
- ④ 301~400만원 이하 ⑤ 401~500만원 이하 ⑥ 501만원 이상

DQ3. 실례지만 학교는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 ① 국졸 이하 ② 중졸 ③ 고졸 ④ 대재 이상

DQ4. [문10에서 종교 있는 사람만]

○○○님께서 자신의 종교적 믿음이 얼마나 깊다고 생각하십니까? (읽어줄 것)

- ① 매우 깊다 ② 약간 깊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깊지 않다 ⑤ 전혀 깊지 않다

면접원 기록사항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응답자 성명		통화 시각	월	일	오전 / 오후
응답자 전화번호		E-mail:		@	

◆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분석

김 병 연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기윤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

서울대 경제학과와 영국 옥스퍼드대학교(경제학박사)에서 공부했으며, 영국 에섹스대학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I.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의 취지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바른교회아카데미의 지원을 받아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이 주관한 사업이다. 기윤실은 한국교회의 신뢰도 여론조사를 2008년에 처음 실시하였으며 2009년 여론조사는 그 두 번째 결과이다. 기윤실이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회의 사회적 신뢰조사의 취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여론조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국 교회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측정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런 면에서 기윤실이 2007년 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본인이 출석하는 교회의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한국교회신뢰지표'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것이다. 둘째,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측정은 한국 교회를 보다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만드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교회 신뢰도를 조사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신뢰도 수준을 측정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영역이나 활동들을 이해하고 이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 전체 차원에서 신뢰도 개선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우리는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증가함으로써 크게 두 가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첫째, 질적, 양적인 측면에서의 한국 교회의 발전이다. 타인으로부터 신뢰받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기독교인들의 인품과 삶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또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일반인으로부터 더욱 신뢰받기 위해 노력한다면 이는 일반인들의 교회에 대한 호감 혹은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며 그 결과 한국 교회가 더욱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한국 사회의 발전이다. 이른바 선진 시민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축적도가 높은 사회이다. 그리고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복지수준도 향상된다는 사실이 여러 학문적 연구에서도 확인되었다. 예를 들면 냅과 키퍼(Knack and Keefer, 1997)는 World Values Survey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적 자본인 '신뢰'와 '시민사회 규범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1980-1992년 동안 신뢰와 시민사회 규범의 변화가 1인당 연평균 GDP증가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29개국을 대상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그 결과에 따르면 10%의 신뢰지수 증가는 1인당 GDP 성장률을 약 0.8%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한다. 잭과 백(Zak과 Knack, 2001)의 연구도 사회적 자본은 네트워크나 공동체 등에 속함으로써 획득되는 소속감, 정체성 등의 사회적 보상(social reward)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후생을 직접적으로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사회가 보다 발전한 시민사회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우리는 기독교인과

한국교회에서 비롯되는 신뢰도 증가는 일반 국민들의 서로에 대한 신뢰 수준을 상승시키고 이는 한국 사회 전체의 사회적 자본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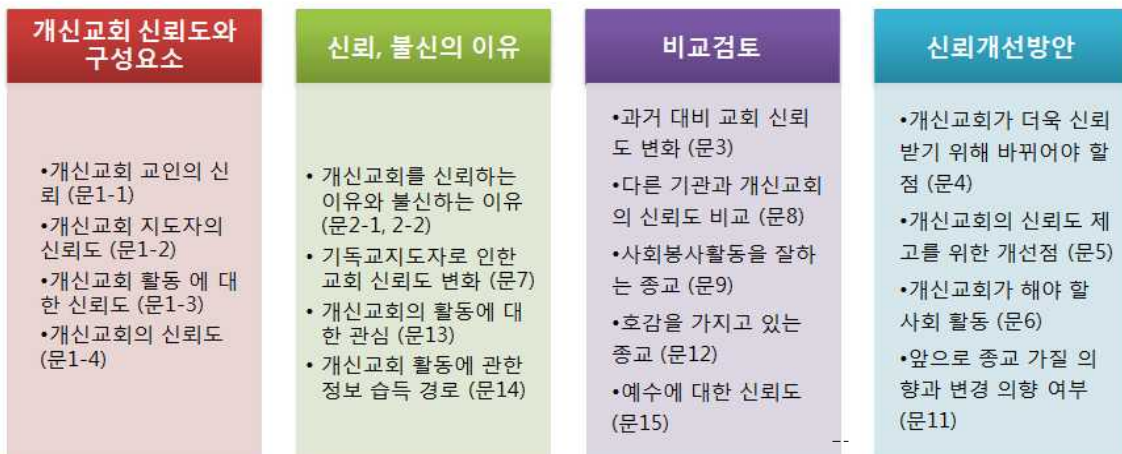
II. 설문 문항 작성의 원칙 및 설문의 구조

우리는 설문 문항의 작성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였다. 첫째, 객관적인 신뢰지수를 도출하기 위해 수치화할 수 있는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즉 신뢰지수는 5점 척도나 100점 척도의 수치로 표현되어서 횡단면적인 비교(예: 한국의 사회기관 또는 다른 종교기관과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둘째, 정확한 결과 도출을 위하여 응답내용들이 상호 점검될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셋째, 설문의 보기들은 가능한 배타적이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응답 결과, 응답자 중에서의 기독교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의 비중보다 많아짐으로써 응답결과가 왜곡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실제 우리나라 인구의 종교 구성 비율에 따라 표본의 종교에 가중치를 부과하였다.

본 설문은 한국 교회 신뢰도의 구성 요소를 개신교인, 개신교회 지도자, 그리고 개신교회의 활동으로 이해하고 한국 교회의 전체 신뢰도 측정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별 구성 요소의 신뢰도도 측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한국 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노력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을 구성했다. 또한 개신교회와 사회 내의 다른 기관들, 그리고 다른 종교 기관들을 상호 비교하여 한국 교회 신뢰도의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회에 대한 신뢰도 제고를 위한 개선점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설문 문항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교회의 신뢰도가 교회와 사회의 소통, 즉 일반인들이 교회에 대해 아는 정도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한 관심 여부와 개신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 주된 채널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신뢰도가 소통의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 교회와 관련된 문제인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문항을 설계하였다.

특히 2009년에는 작년에 비해 5개의 문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지난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 변화, 정계·관계·재계의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한 교회 신뢰도 변화, 사회봉사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종교, 종교를 가질 의향이냐 바꿀 의향 여부,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설문 문항을 추가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 설문의 문항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설문의 구조



III. 설문 결과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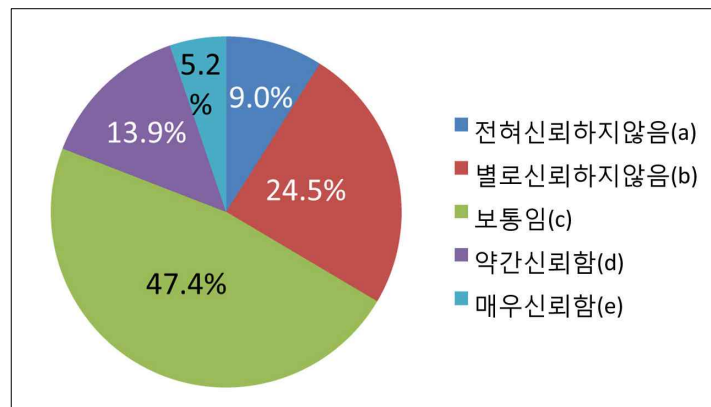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는 2009년 9월 28일부터 29일 동안 만 19세 이상의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하여 전화 설문조사로 실시되었다. 표본은 층화추출법을 사용하여 모집단의 대표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1. 한국 교회의 신뢰도 수준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라는 다섯 가지의 보기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이 각각의 보기에 대해 1점, 2점, 3점, 4점, 5점을 부여하고 응답의 가중치를 고려하여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5점 척도의 점수로 변환하였다. 조사 결과 이와 같이 5점 척도로 평가한 평균 점수는 2.82점으로 나타났다. 즉 중간수준의 신뢰도 보기인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가 3점인 것을 감안하면 평균 이하의 점수를 얻은 셈이다. 또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응답자의 19.1%에 불과한 반면,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47.4% 이었으며 불신한다는 사람들의 비중은 33.5%로 조사되었다.1)(<그림 2>)

또한 응답 내용을 "매우 신뢰한다"부터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까지 5개의 범주로 나누어서 각각 90점, 70점, 50점, 30점, 10점을 부여하여 응답자의 비중으로 가중평균 하였을 때 신뢰지수는 46.3점으로 나타났다.2) 이를 다시 80점 이상은 A학점, 60-79점은 B학점, 40-59점은 C학점, 20-39점은 D학점, 20점 미만은 F학점으로 분류했을 때 한국 개신교회는 C-학점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한국개신교회 신뢰 정도



특히 나이가 젊을수록 교회를 불신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19-29세의 응답자들이 평가하는 교회신뢰도는 44.7점(100점 척도)에 머물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교회신뢰도가 상승하면서 50대에는 50.2점으로

1) 이는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와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합하여 불신하는 그룹으로 분류했으며 "약간 신뢰한다"와 "매우 신뢰한다"로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을 합해서 신뢰하는 그룹으로 분류한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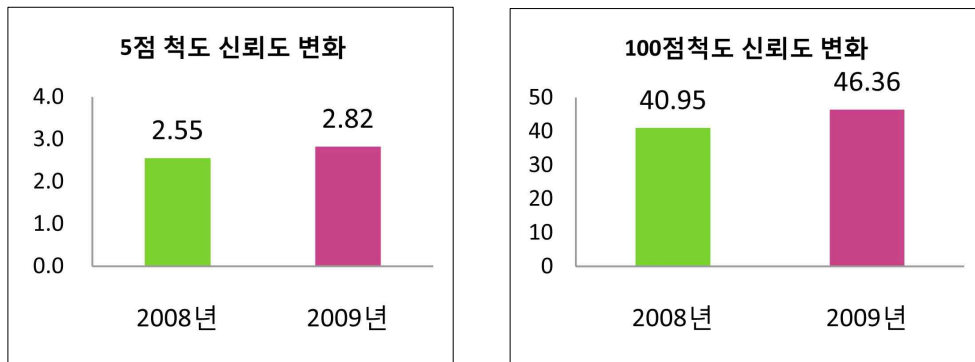
2) "매우 신뢰한다"의 응답에 90점을 부여하였으므로 신뢰지수의 최고점은 90점이다. 그리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의 응답에 10점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최저점은 10점이다. 그러나 우리는 편의상 이를 100점 척도라고 부르기로 한다. 이 양 질문에 대해서 각각 100점과 0점의 점수를 부여해도 가중평균치는 현재의 배점 방법에 의한 가중치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또한 거주지에 따른 신뢰도의 차이를 비교해 볼 때, 거주지가 경기도나 전라도인 응답자들의 신뢰도가 가장 높았고 대구나 경상북도에 있는 응답자들의 신뢰도는 가장 낮았다. 이는 경북에서 불교 세력이 가장 강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비교적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신뢰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득이 낮다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소득이 높다는 응답자들보다 교회에 대한 신뢰 정도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200만 원 이하의 월 소득 수준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신뢰도가 49.3점인 반면, 월 소득 401만 원 이상의 응답자가 평가한 신뢰도는 45.7점이었다.

2. 작년 대비 신뢰도 변화

올해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와 작년의 결과를 비교함으로써 1년 동안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그 차이는 유의미한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올해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작년에 비해 유의미한 차이³⁾를 보이며 상승하였다. 5점 척도에서는 2.55점에서 2.82점으로 0.27점 상승하였고, 100점 척도로는 40.95에서 46.36으로 5.41점 상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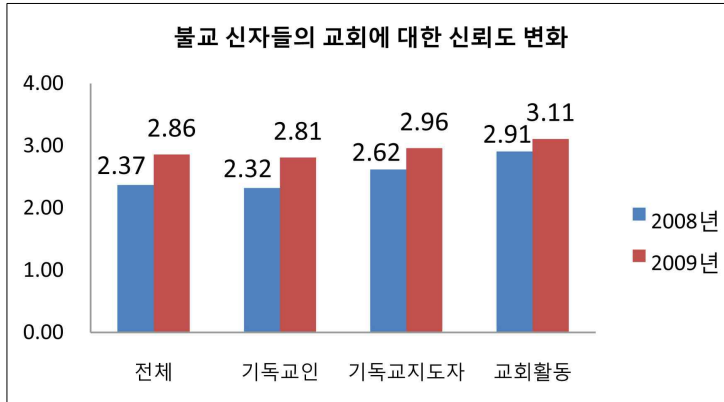
<그림 3> 작년대비 교회에 대한 신뢰도 변화 (5점 척도와 100점 척도로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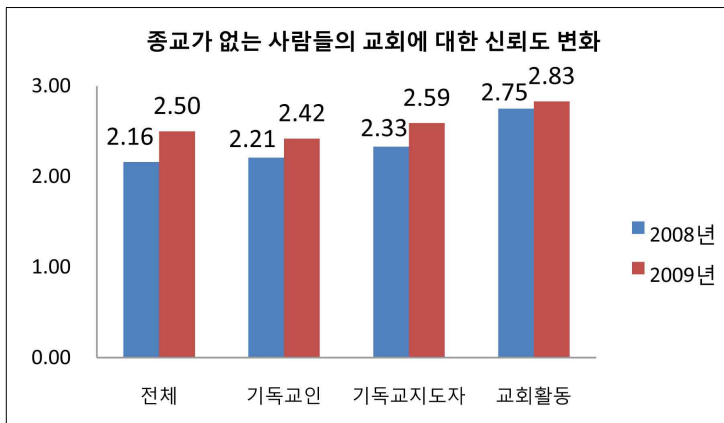
작년과 올해의 설문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볼 때, 눈에 띄는 점은 불교 신자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각 개별 요소에 대한 신뢰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하였다는 것이다.<그림 4>, <그림 5> 반면에 기독교 신자의 경우에는 개신교회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0.20점 감소하였다. 특별히 불교 신자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37에서 2.86으로 0.49점 증가하였는데 평균적인 상승폭이 0.27점이라는 것을 감안하였을 때, 두 배에 가까운 상승폭이다. 이처럼 불교 신자들의 기독교에 대한 신뢰도가 증가한 이유로, 개신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서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을 꼽은 사람들의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작년에는 개신교회의 신뢰제고를 위하여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을 꼽은 사람들의 비율이 25.8%였고 불교 신자 중에서는 35.6%라는 높은 비율의 응답자들이 이 부분에서의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은 올해도 여전히 높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그 수는 감소하여서 전체 응답자 중 20.5%, 특히 불교 신자 중에서 21.3%의 응답자들만이 이를 지적하였다.

3) 표본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4> 불교 신자들의 각 개별 요소에 대한 신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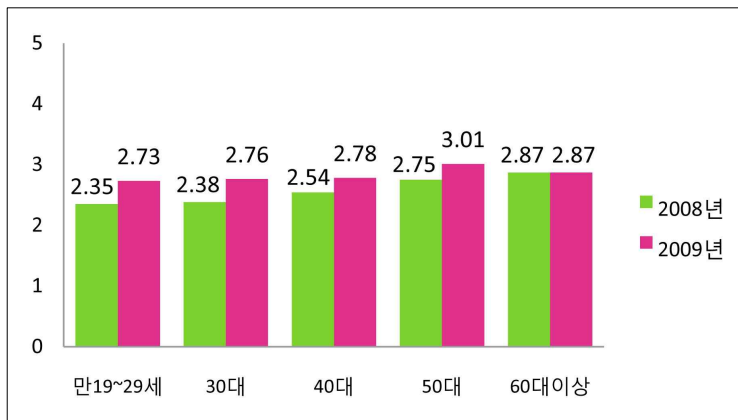


<그림 5> 종교 없는 사람들의 각 개별 요소에 대한 신뢰도



또한 작년에 비해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낮은 20, 30대의 사람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모두 0.38점씩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전체적인 신뢰도 상승에 기여하였다.<그림 6> 흥미로운 점은 과거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해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도 20,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20-30대의 젊은 연령층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2-3년 전에 비해서는 큰 폭으로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비해서는 비교적 높은 증가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는 20-30대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보다 유동적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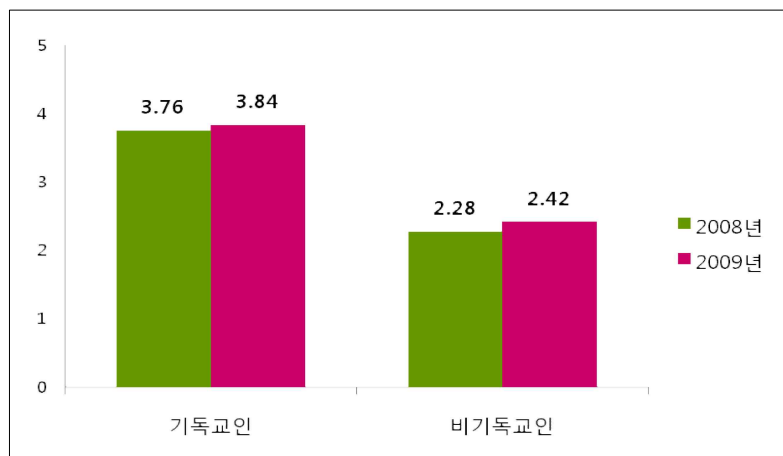
<그림 6> 연령대에 따른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



작년과 비교하여 볼 때 비기독교인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 상승의 주요한 이유로는 먼저 한국 교회가 봉사하는 교회로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2009년 5월 12일 통합 한국교회봉사단이 출범하여 "아픔과 재해가 있는 곳엔 어디든지 달려간다" "섬김과 나눔 사역의 종합화로 한국 교회의 이미지 성숙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치를 내건 통합 한국교회봉사단의 비전 선포는 개신교의 봉사활동의 적극성과 하나됨을 보여줌으로써 개신 교회의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용산참사 때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기독교의 신뢰도를 증가시킨 하나의 요인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2007년 아프가니스탄 사건의 여파가 거의 사라진 점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을 묻는 질문에서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을 꼽은 사람들이 작년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⁴⁾ 마지막으로 이명박정부의 지지율이 작년에 비해 올해 크게 상승한 점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신문(2008.9.8일자와 2009.11.2일자 참고)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의 지지도는 1차 신뢰도 조사 직전인 2008년 9월 23.5%에서 올해의 2차 신뢰도 조사 직전인 2009년 9월에는 45.3%로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 국민들이 이명박 정부와 개신교를 연관짓는 경향이 있음을 두고 볼 때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 상승이 일정 정도 개신교의 신뢰도 상승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교회가 일반인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일정한 정도의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즉 작년 대비 올해 신뢰지수 증가의 하나의 이유는 교회활동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영역에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교회 활동 관심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작년은 2.55점이었고 올해는 2.68점으로써 0.13점 증가하였다. 이를 다시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경우로 나누어 보면, 기독교인의 관심 지수는 0.08점 증가에 그친 반면 비기독교인의 관심도는 0.14점 증가하여 기독교인의 경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그림 7> 실제로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여부가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차이를 가져오는 정도는 회귀분석⁵⁾ 결과 0.67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소통의 진전은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 상승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 7>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



4) '타 종교에 대한 관용'을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은 작년 25.8%에서 올해 20.5%로 감소하였고, 특히 이를 선택한 비기독교인의 비율은 작년 29.4%에서 올해 22.9%로 6.3%포인트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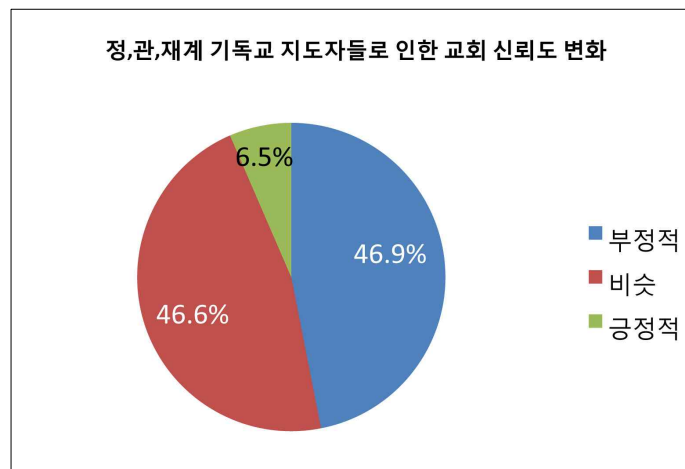
5) 11. 신뢰도를 결정짓는 요인 참고

3. 2-3년 전 대비 신뢰도 변화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볼 때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질문에 대다수의 사람들(69.4%)이 비슷하다고 답하였고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26.6%이며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4.0%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연령대가 낮은 20, 3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30대는 각각 27.6%, 35.5%의 사람들이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했고 나머지 연령대에서 그렇게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40대 23.3%, 50대 21.9%, 그리고 60대 이상은 19.9%를 기록했다. 이처럼 젊은 연령층에서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기독교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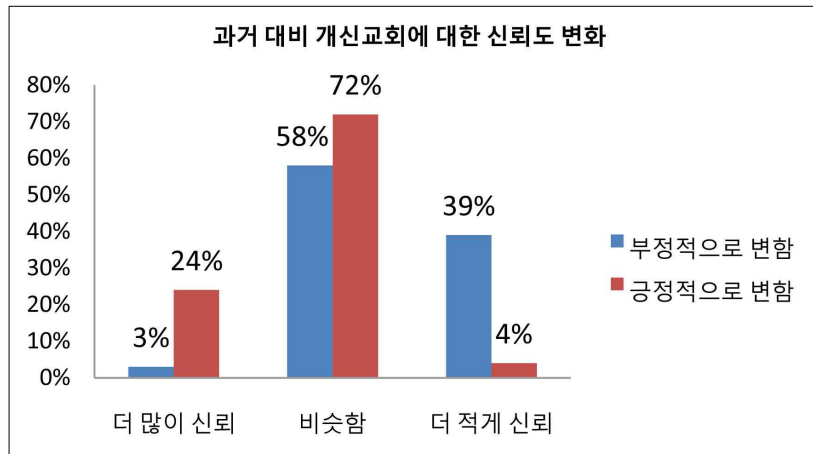
과거 2~3년 전과 비교해서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하나의 이유로서 기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부정적 평가를 들 수 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정·관·재계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사람들이 전체의 46.9%를 차지하였고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사람들은 6.5%에 불과하였다 (<그림 8>)

<그림 8>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한 교회 신뢰도 변화



정·관·재계 기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사람들의 39%가 과거(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해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했고, 58%는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3%의 사람들만이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반면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사람들의 경우 4%가 과거 대비 개신교회에 대해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했고, 72%는 비슷하다고 답했으며 24%가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큰 차이를 나타냈다.(<그림 9>) 또한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해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사람들의 올해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2.59점으로 평균 점수(2.82)보다 낮았지만,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답한 사람들은 3.77점이라는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신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 외에도 사회의 여러 분야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 또한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림 9> 기독교 지도자들로 인한 교회 신뢰도 변화에 따른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 변화**



4. 신뢰도 순서: 교회활동>목사>교인

한국 교회의 신뢰도 전반에 대한 측정과 함께 교인, 목사, 그리고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나누어 측정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교인, 목사, 그리고 교회활동의 순서로 신뢰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진술에 동의(매우 또는 약간 그렇다고 응답)한 응답자의 비중은 19.6%에 불과한 반면 동의하지 않는다(전혀 또는 별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는 응답자의 비중은 2배가 넘는 40.8%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기독교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는 진술에는 25.8%의 사람들이 동의하지만 33.5%의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신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진술에는 35.4%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동의하지 않는 24.3%의 비중보다 훨씬 앞섰다. 또한 교인, 목사, 교회활동의 신뢰도는 각각 45점(5점 척도로는 2.75), 48.6점(2.93), 52.5점(3.13)으로 산출되었다.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의 사회 기여는 인정하면서도 교인들과 목사들에 대해서는 깊이 신뢰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사람의 문제가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핵심 이유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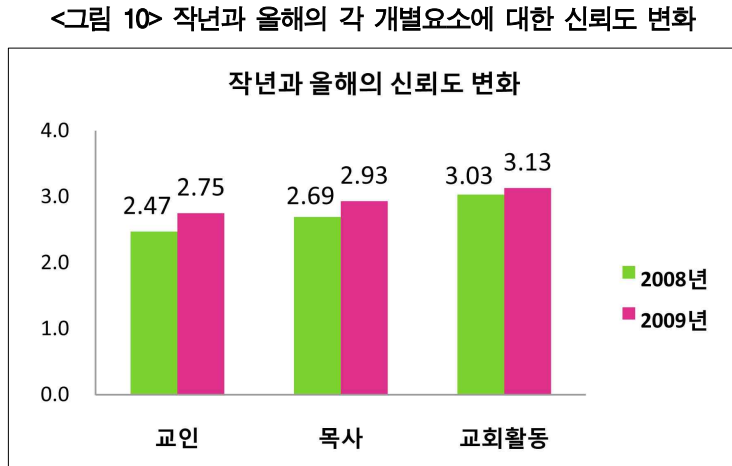
<표 1> 한국 개신교인, 개신교회 지도자, 개신교회 운영에 대한 신뢰도

	전혀 신뢰하지 않음	별로 신뢰하지 않음	보통	약간 신뢰함	매우 신뢰함
개신교인	9.5%	31.3%	39.6%	13.8%	5.8%
교회지도자	8.8%	24.8%	40.6%	16.5%	9.4%
교회운영	7.6%	16.7%	40.3%	26.3%	9.1%

또한 이러한 신뢰도의 순서는 설문조사의 응답자가 기독교인으로 국한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목사님의 설교와 행동에 믿음이 간다고 동의한 기독교인(68.6%)과 개신교회 활동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기독교인(71.1%)에 비해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신뢰한다고 동의한 기독교인(54.3%)의 비율이 가장 낮았다. 즉, 기독교인들 또한 교회의 신뢰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를 교인들에서 찾고 있음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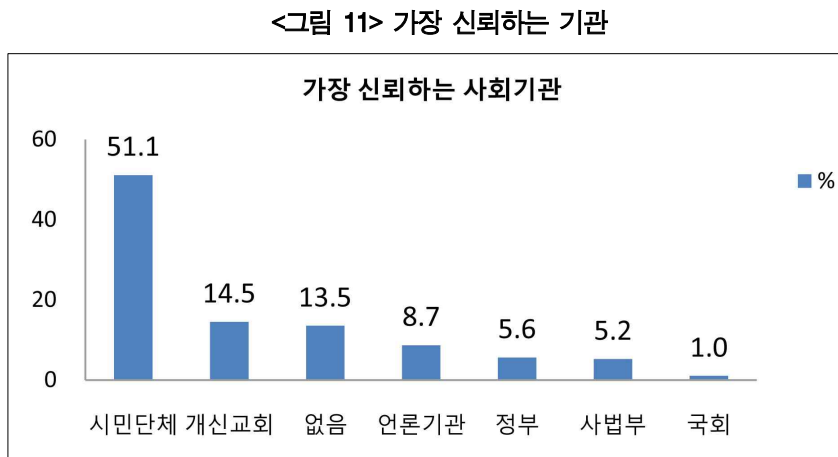
각 개별요소에 대한 신뢰도를 작년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신뢰도의 순서는 작년과 올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모든 요소에서 전반적으로 신뢰도가 상승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며 증가한 요소는 교인과 목사에 대한 신뢰도이고, 이 중 특히 교인에 대한 신뢰도가 큰 폭으로(0.28점) 상승하였다. 한국 교회의 핵심 문제가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교인과 목사에 대한 신뢰도의 상승은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그림 10>



5. 비기독교인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 시민단체>언론기관>개신교회>정부>사법부>입법부

개신교회와 시민단체,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입법부의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51.1%가 시민단체를 신뢰하며, 14.5%가 개신교회를, 8.7%가 언론기관, 5.6%가 정부, 5.2%가 사법부, 그리고 1.0%가 입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신뢰하는 기관이 이 중에서 없다는 응답자의 비중도 13.5%에 달하였다.



개신교회는 시민단체 다음으로, 언론기관이나 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보다 더 신뢰받는 기관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66% 가량이 개신교인임을 고려하여 이들을 제외하고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개신교회의 신뢰도를 타 기관과 비교하였다. 이 경우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한 자들의 비중은 언론기관을 가장 신뢰한다고 답한 자들의 비중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꼽은 사람들의 비중은 47.0%로써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특히 이 결과는 응답자의 종교에 따라 응답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을 보면 종교를 가톨릭교라고 밝힌 응답자들이 신뢰하는 기관의 순서는 시민단체(59.9%), 언론기관(11.3%), 개신교회(4.8%), 정부(3.5%), 사법부(2.3%), 그리고 입법부(0.9%)의 순이었다. 또한 불교를 종교로 가진 응답자들이 신뢰하는 기관의 순서는 시민단체, 개신교회,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의 순이었다. 종교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 중,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하는 자들의 비중은 3.3%에 불과하며 이 비중은 시민단체, 언론기관, 사법부, 정부보다 현저히 낮고 입법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개신교인을 제외한 비기독교인(가톨릭교, 불교, 기타종교 및 종교 없음)의 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시민단체, 언론기관, 개신교회, 정부, 사법부, 입법부 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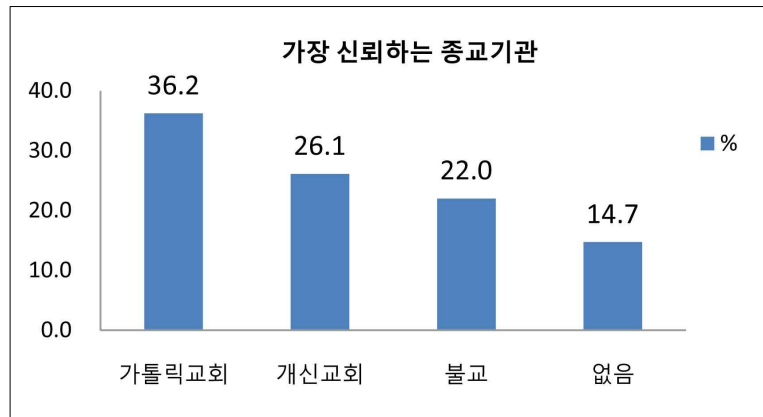
<표 2> 종교별 응답자와 가장 신뢰하는 기관

종교 \ 사회 기관	시민단체	없음	개신교회	언론기관	정부	사법부	국회
기독교	32.8%	8.5%	47.0%	3.5%	4.0%	3.5%	0.0%
가톨릭교	59.9%	17.4%	4.8%	11.3%	3.5%	2.3%	0.9%
불교	45.0%	14.4%	16.4%	7.7%	7.3%	6.4%	1.5%
종교없음	58.9%	14.2%	3.3%	10.6%	5.5%	6.0%	1.2%

6. 종교기관의 신뢰도: 가톨릭교회>개신교회>불교

가톨릭교회, 개신교회, 그리고 불교(사찰)라는 세 종교기관 사이의 신뢰도를 비교한 결과 36.2%의 응답자가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 가톨릭교회를 뽑았고, 26.1%가 개신교회를, 그리고 22.0%가 불교를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12>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표 3>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응답자의 종교특성 반영

신뢰종교 \ 실제종교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불교(사찰)	없음
기독교	81.9%	13.1%	1.2%	3.5%
가톨릭교	1.9%	93.2%	2.0%	2.9%
불교	25.1%	22.3%	45.5%	5.8%
종교없음	10.8%	38.9%	23.1%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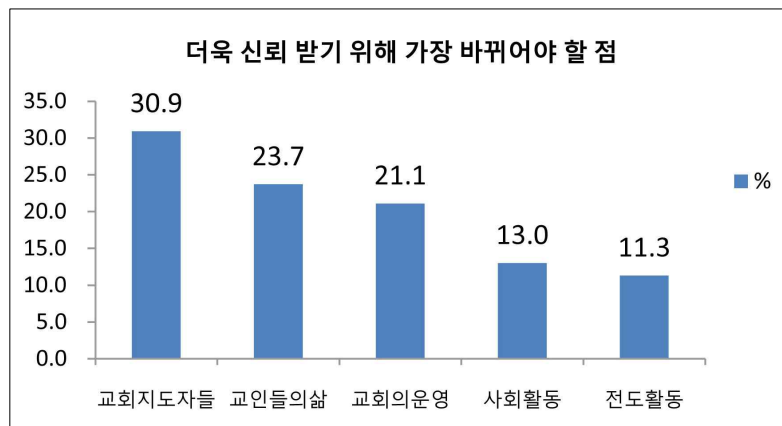
하지만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471명의 사람들 중에서는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자가 불과 10.8%에 불과한 반면, 가톨릭교회는 38.9%, 불교는 23.1%의 응답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 응답하였다.(<표3>) 더욱이 종교를 기독교라고 답한 사람들 중에는 13.1%의 응답자가 개신교회가 아니라 가톨릭교회를 더 신뢰한다고 응답한 반면, 가톨릭을 믿는 사람 중 1.9%만이 제일 신뢰하는 종교기관으로 개신교회를 뽑았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의 응답자들은 불교를 가장 신뢰하는 기관으로 든 반면, 19세 이상부터 60대 미만의 응답자들은 가톨릭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개신교회는 어느 연령대에서도 신뢰도 면에서 가톨릭교회, 불교에 비해 우위를 차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개신교회의 신뢰도가 세 종교기관 중 가장 낮아서 18.0%의 응답자만이 개신교회를 가장 신뢰한다고 응답한 작년의 결과와 비교할 때 올해의 종교기관의 신뢰도 순서는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다.

7.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교인과 지도자들의 언행일치, 봉사와 구제

그렇다면 교회의 신뢰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설문조사는 이에 관해 세 가지 질문을 던졌다. 첫째,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할 대상을 교회지도자들, 교인들, 교회의 운영, 교회의 사회활동, 교회의 전도활동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둘째, 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교회의 사회적 활동 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활동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림 13>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바뀌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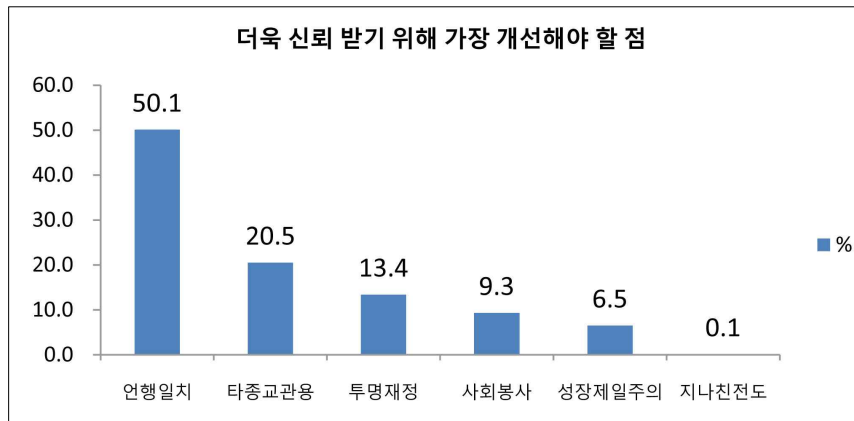


<그림 1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교회가 더 신뢰받기 위해서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서 가장 먼저 교회 지도자들(30.9%), 다음으로 교인들의 삶(23.7%), 그리고 교회의 운영(21.1%)을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언급한 결과에 따르면 교회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는 교인들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다. 하지만 가장 바뀌어야 하는 대상으로서 교회 지도자들을 가장 많이 선택한 이유는 그만큼 사회가 교회 지도자들에게 거는 기대치가 일반 교인들에게 거는 것보다 더 높다는 것을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정, 관, 재계 활동 기독교 지도자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교회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묻는 조사 결과 46.9%의 높은 비율의 응답자가 신뢰도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대답했다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바뀌어야 할 부분으로 교회의 전도활동(11.3%)이나 교회의 사회활동(13.0%)을 지정한 비율은 교회 지도자들, 교인들, 교회운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사회활동 개선의 필요성이 상

대적으로 적게 지적된 것은 교회의 사회활동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사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에 대해 묻는 조사 결과 개신교회가 42.0%의 비율을 차지하였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⁶⁾ 또한 비록 전도활동에 대한 우선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가장 낮게 나타나긴 하였지만 11.3%의 비율도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이는 강압적인 전도가 도리어 개신교회의 신뢰를 감소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두 번째 질문에서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타종교에 대한 관용을 두 번째 순위로 들고 있는 응답결과에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림 14> 개신교회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개선해야 할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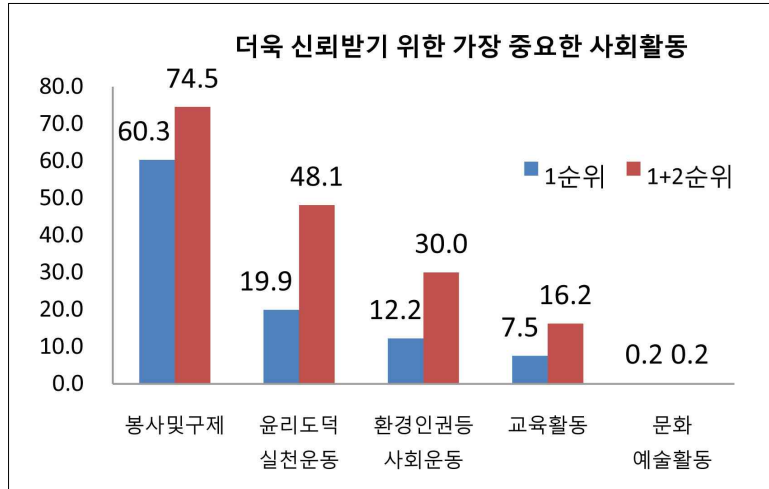


신뢰도 제고의 방법에 관해 묻는 질문, 즉 보기 중에서 무엇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응답자들은 역시 사람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응답하였다. <그림 14>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50.1%에 해당하는 응답자들이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일치 면에서 나아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종교에 대한 관용(20.5%), 재정사용의 투명화(13.4%), 사회봉사(9.3%), 교회의 성장제일주의(6.5%)의 순으로 답하였다. 특히 절반이 넘는 응답자들이 선택한 교인과 교회 지도자들의 언행일치는 작년에 비해 8.1% 포인트 상승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회활동 가운데 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가장 열심히 해야 할 활동으로는 봉사 및 구제활동(60.3%)을 꼽은 응답자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윤리와 도덕실천 운동(19.9%)이 중요하게 나타났다.<그림 15> 이어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12.2%), 그리고 학교 운영 등 교육사업활동(7.5%), 문화예술 활동(0.2%)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열심히 해야 할 사회활동과 두 번째로 열심히 해야 할 사회활동의 보기별 응답비율을 합해서 볼 때, 다수의 응답자들이 봉사 및 구제활동(74.5%), 윤리와 도덕실천 운동(48.1%)을 들고 있어서, 다음 순위인 환경, 인권 등 사회운동(30.0%)보다 두 배에 가까운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봉사 및 구제활동의 응답 비율은 작년의 조사보다 12.5%포인트 상승하여서 이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6) 어느 종교가 가장 사회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잘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서 42%의 응답자들이 기독교를 꼽았고 41.2%의 응답자들이 가톨릭교를, 7.8%는 불교를 선택하였다.

<그림 15> 사회활동 중에서 개신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8. 신뢰의 문제는 소통의 문제

교회의 낮은 신뢰도의 원인을 교인들의 문제뿐 아니라 교회와 일반 국민과의 소통의 부재, 혹은 정보의 비대칭성에서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정도와 어떠한 경로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얻는지 물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48.1%)가 교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특별히 기독교인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67.8%가 관심이 있으며 4.8%만이 관심이 없다고 답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비기독교인들은 13.4%가 관심이 있으며 57.9%는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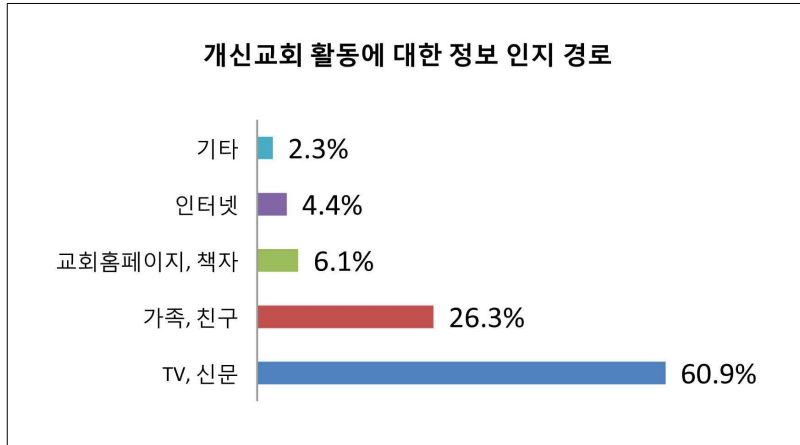
그리고 비기독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정보를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60.9%)나 가족, 친구 등의 지인(26.3%)을 통해서 주로 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6>)

<표 4>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

	전혀관심없음	별로관심없음	보통	약간관심있음	매우관심있음
전체응답자	13.7%	34.4%	28.5%	16.8%	6.6%
기독교인응답자	1.3%	3.5%	27.4%	45.7%	22.1%
비기독교인응답자	16.5%	41.4%	28.7%	10.3%	3.1%

교회에 대한 관심이 교회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신교회의 활동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거나 별로 없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신뢰도는 5점 척도에 2.38점에 불과한 반면 약간 관심이 있거나 매우 관심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들의 신뢰도는 3.58점으로 1.20점이라는 큰 점수 차이를 보였다. 이는 개신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각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또한 사회와의 적극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리고 비기독교인들 중에서 교회에 대한 정보를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습득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2.58점, 가족, 친구를 통해 아는 경우는 2.51점, 인터넷을 통한 경우는 2.79점, 교회 홈페이지나 책자 등을 통해 아는 사람들의 신뢰도는 3.35점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개신 교회의 낮은 신뢰도의 원인을 일부 언론 매체의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나 가족, 친구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서 찾을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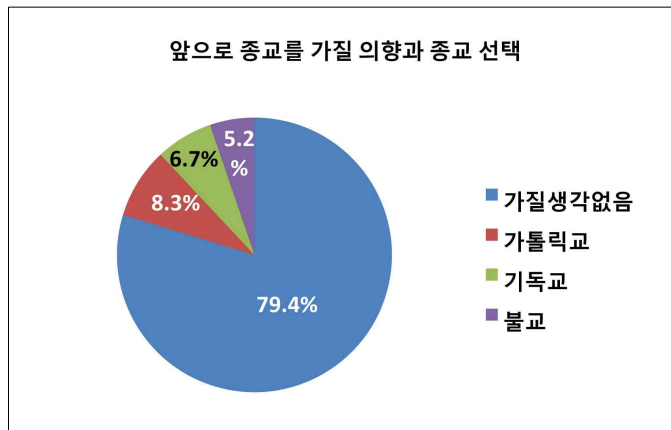
<그림 16> 비기독교인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소통의 채널



9. 종교 기질 의향이나 변경할 의향 여부에 따른 신뢰도 차이

올해 새로이 추가된 질문으로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가지고 싶은 종교가 있는지, 있다면 어떤 종교인지를 묻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종교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대다수인 79.4%가 앞으로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답했고, 8.3%는 가톨릭교, 6.7%는 기독교, 5.2%는 불교를 앞으로 가지고 싶은 종교로 선택하였다.<그림 17> 또한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는 거의 대부분(98.5%)의 사람들이 현재 종교를 바꿀 의향이 없다고 답했고 종교를 바꿀 의향이 있다고 답한 1.3%의 사람들은 모두 가톨릭교나 불교를 꼽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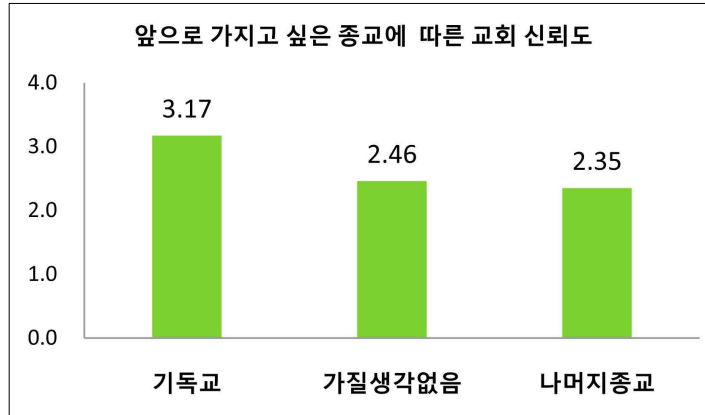
<그림 17> 앞으로 종교를 가질 의향과 종교 선택 분포



또한, 위의 결과와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연결하여 각기 다른 종교 선호를 가진 사람들에게 따라 신뢰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다. 그 결과, 앞으로 갖고 싶은 종교가 기독교인 사람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높아서 3.17점이었고, 나머지 종교를 선호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2.35점 이었다. 특히 '앞으로 종교를 가질 생각이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신뢰도는 2.46점으로,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선호한 사람들의 신뢰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이 둘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8> 그리고 종교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종교를 변경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이 의향이 없는 사람들보다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변경하고 싶은 종교가 모두 가톨릭교나 불교로서 기독교인 경우가

없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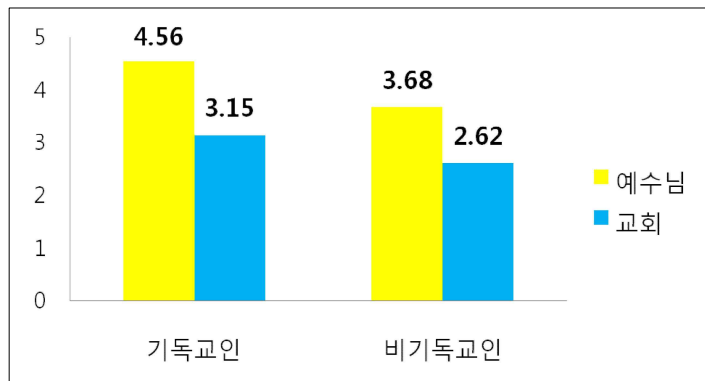
<그림 18> 앞으로 가지고 싶은 종교에 따른 교회 신뢰도



10.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와 교회에 대한 신뢰도 차이

작년의 설문 조사에는 없었던 문항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것과 관계없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 얼마나 믿음이 가는지 묻는 문항이 있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는 5점 척도로 평가했을 때 3.41점을 나타냈고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2.82점)와는 0.59점의 비교적 큰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100점 척도로 측정했을 때는 58.2점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 대해 믿음이 간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은 46.6%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들은 31%, 그리고 믿음이 가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은 22.4%였다. 개신교회에 대해 신뢰한다고 답한 사람들의 비중이 19.1%,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들이 33.6%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신뢰는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보다 훨씬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예수님과 개신 교회에 대한 신뢰도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와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 사이에는 양의 관계가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1점 오를수록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0.43점 오르는 추세를 보였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기독교인의 경우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는 4.56점이고 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3.15점으로 1.41점의 점수 차이를 보였다. 100점 척도 기준으로는 기독교인의 경우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81.2점으로 A 학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다. 비기독교인의 경우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는 3.68점, 교회에 대한 신뢰도

는 2.62점으로 1.02점의 차이를 나타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보다 교회 대비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가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보다 높은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묻는 문제의 응답과 연결시켜 생각해 보았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는 신뢰하지만 개신교회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들이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할 것으로 무엇을 꼽았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응답자의 42% 가량이 교회 지도자를 꼽았고 21% 정도는 교인들의 삶을, 그리고 19%는 교회의 운영을 선택하였다. 이 중에서 전체 응답자의 성향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항목은 교회 지도자로서, 전체 응답자의 31%가 더욱 신뢰받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바뀌어야 할 대상으로 교회 지도자를 꼽았다. 따라서 예수님은 신뢰하지만 교회는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지적한 교회 신뢰의 주된 걸림돌은 교회지도자라는 것이다.

11. 신뢰지수를 결정짓는 요인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5점 척도의 신뢰도를 종속 변수로 둔 회귀분석을 하였다. 종교, 개신교회에 대한 관심의 수준, 연령, 성별, 소득수준, 학력⁷⁾ 등의 변수가 실제 신뢰도의 크기를 결정짓는 유의미한 변수인지, 그리고 유의미한 변수들 가운데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 어느 정도인지 그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이 회귀분석의 목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위의 여섯 가지 변수가 개신교회의 전체 신뢰도(Model 1),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Model 2), 개신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Model 3),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Model 4)를 어느 정도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와 같은 네 모형에서 각 모형의 설명변수는 여섯 가지로 동일하며, 종속변수에만 차이를 두었다.

먼저 아래 <표 5>의 Model 1은 각 개인의 특성과 개신교회 전체 신뢰도와의 관계를 보여준다. 회귀분석 결과 개신교인일수록, 개신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을수록,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 신뢰할수록 개신교회를 더 많이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는 종교가 불교인 사람들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지수를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들의 계수를 비교할 때, 종교가 기독교인지의 여부가 신뢰도의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실제 기독교인만을 고려하여 5점 척도로 신뢰도를 구하였을 때 3.68점으로 비기독교인의 신뢰도인 2.62점보다 약 1.06점 정도가 크다. 또한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역시 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예수님에 대해 신뢰하는 사람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교회에 대한 신뢰도 차이는 0.48점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에 대한 관심(소통) 여부 또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독교에 관심이 없다고 답한 사람과 관심이 많다고 답한 사람과의 신뢰도 차이는 회귀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뢰도 0.67점의 차이를 가져온다. 이는 소통의 문제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신뢰도 차이의 약 60% 정도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7) 연령, 종교, 소득수준, 성별은 가(dummy)변수로 두어서 각 범주가 신뢰도의 크기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하였다. 개신교에 대한 관심이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개신교에 대한 정보의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고려할 수 있는 반면 개신교에 관심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가변수를 사용하여 관심이 많다, 보통이다, 관심이 없다는 세 범주가 개신교회의 신뢰도의 크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교육수준은 최종학력으로 평가하였다.

<표 5> 신뢰도의 결정요인

종속변수:	Model 1: 개신교회의 신뢰도 (전체)				Model 3: 개신교회 목사의 신뢰도			
	Model 2: 개신교인의 신뢰도				Model 4: 개신교회 활동의 신뢰도			
설명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Model 4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Coef.	t-value
AGE20	0.07	0.91	0.12	1.50	0.12	1.45	0.06	0.73
AGE40	-0.01	-0.10	-0.01	-0.15	-0.02	-0.28	0.13	1.68*
AGE50	0.09	1.07	0.04	0.47	0.01	0.07	0.22	2.40**
AGE60	-0.01	-0.05	-0.10	-0.79	-0.16	-1.18	-0.00	-0.04
Prot	0.62	6.48***	0.54	5.58***	0.63	6.26***	0.43	4.36***
Catho	-0.10	-1.06	-0.07	-0.64	-0.23	-2.24**	-0.16	-1.65*
Budis	0.17	2.49**	0.18	2.41**	0.14	1.97**	0.06	0.82
male	0.04	0.81	0.03	0.62	-0.09	-1.73*	-0.03	-0.61
INC200	0.06	0.44	-0.20	-1.51	-0.12	-0.90	0.31	2.33**
INC300	-0.03	-0.28	-0.23	-1.94*	-0.26	-2.01**	0.16	1.23
INC400	-0.04	-0.35	-0.16	-1.33	-0.25	-1.97**	0.06	0.50
INC500	-0.10	-0.87	-0.22	-1.96*	-0.25	-2.11**	0.07	0.57
INC600	-0.04	-0.39	-0.14	-1.32	-0.20	-1.78*	0.08	0.68
INFW	0.36	4.27***	0.26	3.06***	0.36	4.10***	0.38	4.66***
INFB	-0.31	-4.71***	-0.33	-4.62***	-0.43	-5.91***	-0.35	-4.72***
EDU2	0.19	1.13	0.04	0.21	0.07	0.42	0.31	1.75*
EDU3	-0.04	-0.25	-0.15	-0.83	0.07	0.43	0.03	0.17
EDU4	-0.00	-0.03	-0.17	-0.93	-0.02	-0.13	0.13	0.75
Trust	0.15	2.24**	0.29	3.99***	0.19	2.66***	0.30	4.17***
NTrust	-0.33	-4.54***	-0.38	-5.09***	-0.45	-5.66***	-0.35	-4.22***

Note: * $p < 0.10$; ** $p < 0.05$; *** $p < 0.01$

설명변수: AGE20(만 19~29세), AGE40(40대), AGE50(50대), AGE60(60대 이상), 기준더미(30대); Prot(개신교인), Catho(천주교인), Budis(불교), 기준더미(종교없음); INC200(월소득200만원이하), INC300(월소득300만원이하), INC400(월소득400만원이하), INC500(월소득500만원이하), INC600(월소득500만원이상), 기준더미(월소득100만원이하); INFW(개신교회관심있음), INFB(개신교회관심없음), 기준더미(개신교회관심보통); EDU2(중졸), EDU3(고졸), EDU4(대재이상), 기준더미(초졸이하); Trust(예수님신뢰함), NTrust(예수님신뢰안함), 기준더미(예수님신뢰보통)

그 다음으로 세 개의 모형들(Model 2, Model 3, Model 4)은 각각 개인의 특성과 개신교인, 개신교회 지도자, 그리고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와 의 관계를 보여주며 이 분석을 통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로, 기독교인은 전체 신뢰도와 각 개별요소 신뢰도 모두를 비기독교인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만 그 정도는 다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각 개별요소의 신뢰도에 주는 정(positive)의 효과 크기를 비교하면, 0.63점(지도자에 대한 신뢰) > 0.54점(교인에 대한 신뢰) > 0.43점(활동에 대한 신뢰)이다. 이는 종교가 없는 사람에 비해 기독교인은 교회 지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신뢰를 보이는 반면 교회 활동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함을 보여준다.

둘째, 개신교회에 대한 관심(소통)과 소득 수준이 개신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두 개별요소(개신교인 및 교회활동)의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개신교회에 대한 관심의 차이는 5점 척도로 측정된 개신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에 약 0.79점의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교회에 대한 관심의 차이가 교회활동의 신뢰도에 주는 영향은 0.73점이며 개신교인의 신뢰도에 주는 영향은 앞의 두 요소보다 훨씬 작은 0.59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교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여러 채널들을 잘 활용하여 교회와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다면, 개신교회 지도자나 교회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월 평균소득 100만 원 이하)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월 평균소득 301만 원 이상)보다 개신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가 더 높았다. 소득 수준이 개신교인이나 교회 활동의 신뢰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데 반해 왜 교회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 데는 유의미한지는 생각해 볼만한 흥미로운 점이다.

셋째, 종교가 불교인지의 여부가 개신교인과 지도자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신자들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보다 개신교인과 지도자의 신뢰도를 높게 평가했으며, 흥미롭게도 기독교 지도자에 대해서는 불교신자들의 신뢰도가 가톨릭 신자들의 신뢰도보다 더 높았다. 이는 곧 가톨릭 신자들이 기독교 지도자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신뢰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마지막으로, 연령 차이가 개신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 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40대 이상의 중년층이 교회 활동에 대해 젊은 층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연령이 개신교인 혹은 지도자의 신뢰도를 설명하는 데에는 크게 유의미하지 않은데 반해 왜 교회 활동에 대한 신뢰도를 설명하는 데는 유의미한지도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다.

IV. 결론 및 맺음말

2009년 한국 교회의 사회신뢰도 여론조사결과는 작년에 비해 긍정적인 결과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3년 전에 비해서는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올해 신뢰도의 상승은 "하락 추세 속에서의 유의미한 반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반등이 향후 추세적 전환으로 이어질지, 혹은 이 수준에서 약간의 등락을 거듭할지, 혹은 더욱 하락할지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추세적으로 한국 교회의 신뢰지수가 상승하려면 한국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삶,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삶과 행동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 국민들이 인식하는 한국 개신교의 문제점은 바로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면에서의 돌이킴이 없이는 더 신뢰받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 교회의 신뢰지수가 중간 점수인 3점 이하인 2.82점에 그친다는 결과는 작년 보고서의 결론인 "한국교회는 불신 받고 있으며, 고립되어 있고 사회로부터 단절되어 있으며 소통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 종교별 비교에서도 가톨릭의 신뢰도에 크게 못 미치고 있으며 비기독교인이 평가한 다른 기관과의 신뢰도 비교에서도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시민단체나 언론기관의 신뢰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국 교회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은 이원적 가치관, 즉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분리하는 가치관을 극복해야 한다. 오히려 성경말씀을 따르는 사회생활이 기독교인의 참된 증거임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한다. 아브라함 카이퍼의 말대로 "삶의 총체적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교회생활, 즉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만을 열심히 신양인 것처럼 교회가 가르치고 유도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배움으로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의 본분을 다하며 예수님의 모습을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라고 교회는 가르쳐야 한다. 기독교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 기업가이면 기업가로서, 그리고 교사들, 근로자들도 교사와 근로자로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정의와 공평, 사랑과 긍휼을 추구하면서, 최선을 다하지만 약자를 포용하고 배려하는 모습들을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보여주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나 세상 속에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여 힘으로 자신들의 주장을 내세워서는 안된다. 오히려 겸손한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교회와 교회활동에 대하여 정직하고 효과적으로 사회에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현재 한국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사회봉사와 사회기여의 현황이 잘

소개된다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이 평가한 신뢰지수의 차이 중 약 60% 정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회귀분석 결과도 사회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한국 교회가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야 한국 교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도 이 조사결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다. 개별 교회가 교인들을 교회 활동에만 몰입시키고 그 결과 교인과 일반인, 교회와 사회가 분리된다면 그 교회는 성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는 퇴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그 교회마저도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교회지도자들은 교인들을 교회 안에만 가두어두려 하지 말고 오히려 사회와 소통하고 사회를 섬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닫힌 교회가 아닌 열린 교회,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교회,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 교회활동에 있어서도 사회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중요하고 영향력 있으며 사회가 바라는 활동들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이다.

교인 수가 감소하고 교회의 영향력이 퇴락한 여러 선진국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우려될 정도로 일반인들은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대단히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기독교 목사와 정,관,재계 기독교 지도자들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며 그들에 의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 부분 결정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전체 기독교인들의 삶에 대한 반성과 각성 없이는 한국 교회의 미래는 대단히 어둡다는 점을 본 여론조사 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 참 고 문 헌 >

김병연, "2008년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분석보고서", 기윤실, 2008.

황호찬, "한국교회 신뢰지표 작성에 관한 연구보고서"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2007.

Knack, Stephen and Philip Keefer (1997), "Does Social Capital Have An Economic Payoff? A Cross-Country Investigation,"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 112, No. 4: pp 1251-1288.

Zak, Paul J., and Stephen Knack (2001), "Trust and Growth," The Economic Journal Vol. 111, Issue 470: pp. 295-321.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결과에 대하여

조성돈 교수(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

연세대학교 신학과 3년을 수료하고, 독일 Kiel대학교와 Marburg대학교에서 실천신학(Dr.theol)을 공부했다.
현재 목회사회학연구소 소장,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목회사회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기윤실에서는 작년도에 이어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의 남녀 1000명에게 한국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한국교회를 신뢰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다. 그리고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도 질문해 봄으로써 교회가 생각하는 것과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현재의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성 수준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 그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나아갈 방향에 대한 담론을 위한 토대를 제기해 보고자 한다.

전년도 대비 신뢰도 향상

이번 조사에서 핵심적 사항은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졌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신뢰한다고 긍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은 전체적으로 19.1%에 이르러서 작년도 18.4%에 비해서 약 0.7% 정도 증가했다. 미미하기는 하지만 일 년 만에 조사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적지 않은 발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도 증가와 더불어서 우리가 눈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들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신뢰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사람은 33.5%이다. 작년도에는 이 숫자가 48.3%에 이르렀다. 즉 작년도에는 전 국민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자신들의 불신을 확실하게 드러냈는데 반해서 올해는 33.5%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15%에 이르는 사람들이 긍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부정적 입장을 철회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보류적 입장인 보통이라고 답한 사람이 작년도 33.3%에서 47.4%로 증가하였는데 여기서 우리는 선교적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입장 현저히 줄어

특히 이러한 부정적 입장이 줄어들게 된 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더욱 긍정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대답한 사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9.0%, '별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24.5%이다. 작년도에는 같은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23.2%, '별로 그렇지 않다'고 대답한 사람이 25.1%였다. 즉 적극적 부정에서

14.2%가 줄어들었고, 소극적 부정에서도 1.4%가 줄어든 것이다. 다시 말해 기독교에 대해서 강하게 부정하던 사람들이 지난 일 년간 현저하게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특히 이것은 40대 미만, 즉 10대부터 30대 사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이번 조사의 핵심적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한국교회를 신뢰한다”에 대한 대답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2009년도 조사(%)	9.0	24.5	47.4	13.9	5.2
2008년도 조사(%)	23.2	25.1	33.3	10.6	7.8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이번 조사의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한국교회에 대한 속성별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교회의 활동은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대해서 35.4%가 그렇다고 대답을 하였고, 40.3%가 보통으로, 그리고 24.3%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을 한 것이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2008년도에는 그렇다 38.0%, 보통 27.7%, 그렇지 않다 34.3%로 대답이 나왔었다. 전년도의 대답에 비해 역시 부정적 입장이 줄어들고, 보통으로 응답한 사람이 늘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즉 10% 가량의 사람들이 부정적 입장에서 보통으로 돌아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이기적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한국교회는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좁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만 심혈을 기울려 왔고, 교회의 확장과 교회당 짓는 데만 신경을 써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래도 한국교회의 활동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는 대답을 들은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경계를 풀수 없는 대목이 ‘그렇다고 대답한 사람은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약간이나마 감소했다는 것이다. 우리의 활동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은 줄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도움이 되는 것 역시 아니라는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함께 볼 수 있는 질문이 있다. 그것은 지난 2-3년 전에 대비해서 개신교회의 신뢰도가 어떻게 변화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4.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69.4%에 이르는 사람들이 비슷하다고 응답하였고, 26.6%에 이르는 사람은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응답하고 있다.

가톨릭, 개신교에 대해 불신

이 질문을 또 종교별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특별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 개신교인들은 이 질문에서 11.3%만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대답을 하였고, 비슷하다고 대답한 사람은 70.7%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해 가톨릭교인들은 개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신뢰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오히려 31.2%의 사람들이 더 적게 신뢰하게 되었다고 대답하고 있다. 불교의 경우는 일반과 비슷하게 4.0%가 긍정적으로, 그리고 25.7%가 부정적 대답을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보면 의외로 가톨릭교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가톨릭 응답자 110명 중 단 한 명도 개신교에 대해서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고 답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가까운 것 같은 가톨릭과 개신교는 어쩌면 그 종교적 성향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것을 이 조사에서 엿볼 수 있다. 서로의 지향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하여서 호감종교에 대한 대답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신교가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충성

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데, 개신교의 경우 자신의 종교에 대해서 85.0%가 호감도를 표시한 반면, 가톨릭의 경우는 89.6%에 이르는 것으로 자신의 종교에 대한 충성도에서 개신교를 압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불교의 경우는 자신의 종교에 대한 호감도에서 50.8%로 나타나 가장 충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앞의 통계와 연관해서 생각해 보면 가톨릭의 경우 자신의 종교에 대한 충성도와 함께 개신교에 대한 불신과 비호감으로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호감도 조사에서 개신교는 가톨릭에 대한 호감도 11.1%를 나타낸 반면, 가톨릭은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에서 2.2%만 보여주고 있어 그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개신교 호감도 급상승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에 대한 일반적인 호감도는 작년에 비해서 급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올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는 28.0%이다. 작년도에는 이것이 20.6%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호감종교에 대한 질문에서 가톨릭 29.8%, 불교 31.5%에 비해서 가장 낮은 호감도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올해는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인 가톨릭이 33.7%로 개신교에 비해서 5.7%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작년도 호감도 2위였던 불교는 26.4%로 개신교에 밀려 3위로 자리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호감도 조사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20대의 변화이다. 작년도에는 20대에서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는 불교로서 무려 34.6%가 호감을 표시했고, 개신교는 19.6%에 머물렀는데, 올해는 개신교가 29.6%로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로 선택되었고, 그 다음이 가톨릭 28.0%, 불교 26.4%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이 해석은 다른 데이터와 함께 연관하여 보도록 하겠다.

여기서 중요한 결과가 하나 더 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에 대한 질문에서 개신교에 대한 응답이 지난 해 18.0%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26.1%로 무려 8.1% 증가한 것이다. 이에 비해 가톨릭은 35.2%에서 36.2%로 1% 증가하였고, 불교의 경우는 31.1%에서 22%로 9.1%가 감소하였다. 역시 이러한 변화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20대에서 나타난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에서 20대는 개신교에 대해서 작년에 16.8%였는데 올해는 27.8%로 무려 11%나 증가하였다. 한 해 동안 약 1.5배가량 늘었다는 것은 결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또 여기서 주목하는 바는 가톨릭의 경우 26.0%에서 29.4%로 소폭 증가하였고, 불교의 경우는 37.0%에서 22% 무려 15%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사회적 변화와 그 대응

이렇게 급하게 변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작년에는 촛불집회라고 하는 국가적 변동 사항이 있었다. 작년 서울시청 앞에 모였던 그 열기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다. 물론 1987년의 일이 있지만 그 당시의 양상과는 다른 것이었기에 이러한 문화는 특별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촛불집회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었다. 온 국민이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상황이나 문화가 아니라 온라인이라고 하는 가상의 현실에서 이루어 지던 것들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그 특징은 상당히 감성적인 반응이었고 온라인의 특징 중에 하나인 선동에 의해서 무리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러한 영향을 많이 받은 세대가 10대와 20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10대가 빠졌기 때문에 20대에서 이러한 변화가 급하게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작년도 촛불집회 정국에서 개신교는 상당히 이방인으로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이명박 대통

령이 초기에 개신교의 장로로 특징지어졌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실정이 개신교의 잘못으로 인식되어졌던 것도 있었다. 따라서 개신교회는 이 부분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개신교에서도 시정 앞에 촛불교회를 세우는 등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긴 했지만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가져왔던 개신교의 전통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던 것이다. 이에 반해서 불교는 촛불집회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었다. 이것은 과거 불교에서 볼 수 없었던 모양이기 때문에 더 주목을 받게 되었을 것이다. 특히 촛불집회 지도자들이 조계사로 피신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촛불집회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조계사로 대표되는 불교계에 주목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불교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호감도가 작년에 높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러한 사회적 이슈가 사라지고 불교의 사회적 역할도 줄어들면서 젊은 사람들로 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사회적 신뢰도는 사회적 상황과 그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러한 반응들의 속도가 빨라지고 하나의 이슈로 선동되어지는 부분이 크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여론이 젊은 층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는데, 이 젊은 층의 여론은 쉽 없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쉽게도 이 부분이 개신교가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다. 여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창구가 없고 전략적으로 자신을 포장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구가 없다. 오히려 개신교는 기관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교계를 대표할 수 있는 몇몇 인물들에 의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기관의 대표가 아니라 큰 교회의 목사들이 많이 있다. 이 분들이 교계의 여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대사회적인 전략적 사고에 의한 언급이 아니라 소위 자신들의 '감(感)'에 의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다. 즉 본인들의 발언이 어떠한 사회적 영향력으로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아니라, 이 발언이 사회에서 주목을 받을 것인가에 더 관심을 갖는 것이다. 그리고 목사들의 경우는 여러 곳에서, 특히 교회의 설교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항상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발달된 인터넷 환경에서 잘 못 왜곡되어 전달되는 경우 심각한 사회적 반감을 얻는 경우들이 자주 있다. 특히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발언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마치 그러한 의견이 개신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전달될 경우 개신교의 신뢰도와 호감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지의 필요성, 그리고 전략적 사고

이러한 반증은 이번 조사의 곳곳에서 나타난다. 먼저는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관식으로 물은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32.2%(복수응답)가 교회지도자, 교인들의 언행불일치를 꼽은 것이다. 그리고 '정치계, 관계, 재계 등에서 기독교인 지도자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하는 질문에 대해서 46.9%가 부정적으로 바뀌었다고 대답을 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개신교회가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55.7%에 이르는 사람들이 TV, 신문 등 언론 매체 등을 통해서 얻는다고 대답을 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일반적인 국민들의 입장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TV, 신문 등의 언론매체에 나오고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언행을 통해서라고 할 수 있다. 즉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언론매체에서 비쳐지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들의 말들에 의해서 그 종교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한국교회의 신뢰도 향상은 변동하는 사회적 상황에서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대응들을 어떠한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는 본질에 대한 충실성을 넘어 선교적 차원에서 한국교회의 모습을 이 사회에서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봉사를 통한 신뢰회복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 상승 이유에 또 중요한 부분은 전년도에 비해 한국교회가 많은 봉사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던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건 때 보여주었던 교회의 활동이나 수재지역에서 교회가 했던 일들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전에 비해 교회들이 봉사에 있어서 연합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그러한 활동을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독교가 하고 있는 일들을 드러냄으로써 한국교회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적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도 비슷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것인데 사회 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여기서 예상과는 다르게 개신교가 42.0%로 최고의 선택을 받았다. 천주교는 비슷한 수준인 41.2%, 그리고 불교는 7.8%로 나타났다. 과거에는 개신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봉사를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볼 때 한국교회의 봉사활동이 사회에서 인정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바로 지난 한 해 동안 개신교회가 많은 봉사활동을 수행했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질문에서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더 개신교를 선택한 사람들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에서는 무려 49.3%에 이르는 사람들이 개신교가 가장 사회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나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개신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주관식으로 물은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이유에 대해서 21.7%(복수응답)에 이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라고 대답을 했다. 이것은 가장 많은 응답으로서 이 뒤를 이어 선행의 올바른 가르침(14.4%), 본인이 선택한 종교에 대한 믿음(13.6%), 성경 말씀의 신뢰(8.4%) 등이 나오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에 대해서 이 사회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이 사회에서 교회가 봉사하는 기관으로서 자리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 종교 기관이 전하고 있는 교리나 믿음보다도 선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 결과는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보면 다른 것에 대해서 이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를 물은 질문에 대해서 32.2%에 이르는 사람들이 '교회지도자,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를 그 이유로 꼽았다. 이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그를 따르는 교인들이나 지도자들의 행동을 볼 때에 믿을 수 없다는 표현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 가르침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결과를 보여 달라는 것이다.

어쩌면 교회의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아주 간단할 수 있다. 국민들의 요구는 교회가 이 사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의 교인들이 언행이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 달라는 아주 단순한 것이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를 가르치려하지 말고 우리를 섬기는 종교적 자세를 보여준다면 당신들을 믿겠다는 말이다. 한 알의 밀알을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교훈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썩어 없어져야 열매를 맺는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현재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이슈 사라지고, 이미지 개선

작년에 비하여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는 상당히 향상되었다. 이렇게 향상된 가장 큰 이유는 교회를 둘러싼 이슈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작년만 해도 2007년에 있었던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의 여파가 남아 있었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교회와의 연관성 때문에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던 때이다. 더구나 촛불집회를 통해서 네티즌들의 의식이 활성화되어 있었고 그 중심에서 한국교회 역시 질타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정의 응답을 하도록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올해는 이러한 이슈들이 현저히 줄어들고 개신교에 영향을 받은 정부라고 생각하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호감도 역시 증가하면서 개신교회를 향해서 쏟아졌던 적극적 부정들이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석이 가능한 것은 특히 젊은 층에서 개신교에 대해서 가졌던 부정적 입장들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분석으로 본다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 일들에 의한 결과가 아니라 사회에서 비쳐지는 개신교회의 이미지, 그리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정황 등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교회가 이러한 일들을 하는데 왜 안 알아주는가에 대해서 섭섭해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고 꾸며 나가는 일을 교회가 감당해야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런데 개신교회는 다른 종교에 비해서 느슨한 조직체를 가지고 있고, 연합활동 역시 잘 되지 않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라고 하는 부분에서 한국교회가 작년에 많은 것을 보여주었기에 작년에 비해 올해 현저한 발전을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이러한 일들이 좀 더 전략적으로 행해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발표 세미나

언론보도 기사모음

(기사는 해당 신문사의 허가를 받아 전재한 것입니다.)

국민일보

2009년 11월 13일 금요일 030면 미션

교회 신뢰도 높아졌지만...

5점 만점에 2.82점... '강한 반감' 지난해보다 14%p 줄어

기운실, 1000명 여론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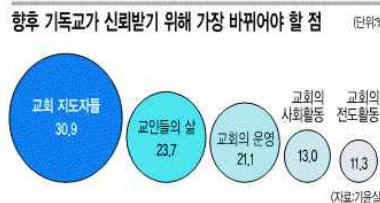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약간'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5명 중 1명 정도만 교회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2009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지난 9월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1%였다. 지난해 조사 때 18.4%보다 0.7% 포인트 상승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33.5%로 지난해 48.3%에 비해 비교적 큰 폭으로 낮아졌다. 특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는 강한 반감이 지난해 23.2%에서 올해 9.0%로 크게 줄었다.

5점 만점으로 환산한 한국교회 신뢰도는 2.82점이었다. '신뢰도 불신도 하지 않는다'가 3점인 것을 감안하면 아직 평균 이하의 신뢰도를 보인 셈이다. 기운실은 'C'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이유(복수응답)는 '교회 지도자, 교인들의 언행불일치'(32.2%)가 제일 많았다. 이어 '교회 지도자의 무분별한 선교활동'(10.0%), '타 종교 비방'(9.0%), '교회 성장에만 관심'(7.



교회 지도자 언행 불일치

불신 이유·개선점 1위 꼽아

21% "사회봉사활동 신뢰감"

4%) 등 순이었다. 반면 교회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21.7%), '선행의 올바른 가르침'(14.4%) 등이 꼽혔다.

지난 2~3년 전과 비교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69.4%가 '비슷하다'고 했고, 26.6%는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고 응답했다. '더 많이 신뢰하게 됐다'는 4.0%에 그쳤다. '정·관·재계 활동 기독교 지도자의 언행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바뀌었나'는 질문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가 6.5%인데 반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46.9%나 됐다.

종교 호감도는 가톨릭(33.7%)이 가장 높았고 기독교(28.0%) 불교(26.4%)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 20.6%로 3위였던 기독교는 1년 새 호감도가 크게 오르며 불교를 제쳤다. 이는 사회봉사 활동을 가장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로 기독교(42.0%)가 꼽힌 것과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다.

향후 교회 신뢰도 제고를 위해 바뀌어야 할 점으로는 가장 많은 30.9%가 교회 지도자를 지적했다. 이어 교인들의 삶(23.7%), 교회 운영(21.1%), 교회의 사회활동(13.0%), 교회의 전도활동(11.3) 등 순이었다.

책임연구를 맡은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신뢰도 상승은 하락 추세 속에서의 유의미한 반등"이라며 "한국교회 신뢰도가 낮은 핵심 이유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 교인들의 삶과 행동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운실은 13일 서울 남산동 청어람에서 자료를 공식 발표하고 관련 세미나를 연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성인 10명중 2명만 개신교회 신뢰" <기윤실>

(연합뉴스 2009-11-11 17:59 조채희 기자 chaehee@yna.co.kr)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서울=연합뉴스) 조채희 기자 =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는 성인은 10명 중 2명꼴인 19.1%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우창록, 이하 기윤실)은 지난 9월28-29일 만 19세 이상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화설문을 통해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19.1%에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보통이다'라고 밝힌 응답자는 47.4%,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33.5% 였다.

기윤실은 지난해에 이어 실시한 이번 여론조사에서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여전히 낮았지만 지난해의 18.4%보다는 약간 신뢰도가 올라간 결과라고 밝혔다. 특히 '신뢰한다'는 응답자비율은 지난해보다 0.7% 포인트 상승했으나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이 14.8% 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이런 응답을 5점 만점의 신뢰도로 환산한 결과 한국 개신교회의 신뢰도는 2.82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46.3점이었다.

교회를 신뢰하는 이유(복수응답)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21.7%) 였고, 신뢰하지 않는 이유로는 '교회 지도자와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32.2%)가 대표적으로 지적됐다.

지난 2-3년 전에 비해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묻은 결과 69.4%는 '비슷하다'고 응답했고,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는 26.6%, '더 많이 신뢰하게 됐다'는 4.0% 였다. 특히 20대와 30대 응답자 중에서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자 비율이 각각 27.6%, 35.5%로 높았다.

'정·관·재계 활동 기독교 지도자의 말과 행동을 보면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바뀌었나'는 질문에 대해 '비슷하다'가 46.6%, '긍정적으로 바뀌었다'가 6.5%인데 비해 '부정적으로 바뀌었다'는 응답이 46.9%로 가장 많았다.

종교기관별 신뢰도는 가톨릭교회(36.2%), 개신교회(26.1%), 불교(22.0%) 순이었다.

앞으로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변화해야할 점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응답자가 '교회지도자들'(30.9%)이 바뀌어야한다고 대답했고, 다음이 '교인들의 삶'(23.7%), '교회 운영'(21.1%), '교회의 사회활동'(13.0%), '교회의 전도활동'(11.3%) 순으로 꼽혔다.

이번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3.1%다.

한편 기윤실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13일 오전 남산동 청어람에서 세미나를 연다.

한국교회 신뢰도, '소폭 상승'

(CBS 2009-11-11 조해진 기자 jeenylove@cbs.co.kr)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올해 조사한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5점 만점에 2.82점으로 2.55점인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한국교회는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지난해 18.4%에서 올해는 19.1%로, 상승폭은 미미하지만, 기독교에 대해 강한 반감이 있는 이들이 줄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한국교회를 신뢰한다'의 문항에 대해 지난해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응답자가 23.2%나 됐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9%로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교별 호감도에서도 지난해에는 개신교가 가톨릭과 불교 등 3개 종교 중 최하위 순위를 기록한 데 반해 올해는 2위를 차지했다는 것도 의미 있는 결과다. 이는 사회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종교로 개신교를 가장 많이 꼽은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들은 개신교(42%) 가톨릭(41.2%) 불교(7.8%)의 순으로 답했다.

조성돈 교수(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는 "한국교회는 봉사하는 단체라는 이미지가 사회에 각인된 것이 한 원인이고 또, 아프간 피랍사건 등 교회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주는 특별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신뢰도 상승의 원인을 분석했다.

그러나, '낙관적이지 않음'

그렇다고 개신교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다.

'2-3년 전보다 개신교에 대해 신뢰도가 더 낮아졌다'는 응답자가 27% 정도인 반면, '더 많이 신뢰하게 됐다'는 응답자는 4%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관계 기독교지도자의 말과 행동의 영향으로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응답 비율(46.9%)도 절반 정도나 됐다.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는 비율은 6.5%에 불과했다.

봉사활동에 더 힘쓰고, 이미지 개선에 노력해야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개신교를 신뢰하는 이유로 '봉사활동'을, 불신 이유로는 교회지도자와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를 각각 1위로 꼽았다는 것과,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언론매체를 통해 얻는다고 답한 조사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성돈 교수(기윤실 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본부장)는 "교회 신뢰도 회복을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며, "교인들이 언행일치의 모습을 보이고 봉사활동에 더욱 힘쓰며, 개신교회의 이미지가 사회에 어떻게 비춰질 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사람'이 바뀌어야

특히, 교회지도자와 교인 등 '사람'이 변해야 한다는 지적은 주목할 만 하다.

응답자들은 '개신교회가 신뢰받으려면 바뀌어야 할 점'으로 교회지도자들(30.9%)을 1위로 꼽았고, '개선돼야 할 점'으로는 교인과 교회지도자들의 언행일치(50.1%)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의 만 19세 이상의 남녀 천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됐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다.

한편, 기윤실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13일 오전 남산동 청어람에서 세미나를 연다.

기윤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신뢰도가 작지만,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다"며 "이런 작업은 결코 한국교회를 비난하거나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목회자와 교인들 스스로가 자기반성을 위해 고통스럽지만, 꼭 감당해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신뢰 약해진 교회 “사회를 섬기자”

(경향신문 2009-11-12 도재기 기자 jaeklee@kyunghyang.com)

· 개신교 최초 ‘사회적 책임’ 토론회

성인 3명 중 1명은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신교회가 개선할 점으로는 교인·교회지도자들의 언행일치, 타종교에 대한 관용 등이 꼽혔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과 바른교회아카데미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월28~2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은 19.1%로 지난해 조사보다 0.7%포인트 상승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5%다. 신뢰하는 이유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가 21%로 가장 많으며, 신뢰하지 않는 이유는 교회지도자·교인들의 언행불일치(32.2%), 무분별한 선교(10.0%), 타종교 비방(9%), 기업화 현상(7.4%) 등이 지목됐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등이 개신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한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에서 참여자들이 주제발표를 듣고 있다. |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제공

개신교회의 개선할 점으로는 교회지도자·교인들의 언행 일치(50.1%), 타종교 관용(20.5%), 재정 투명화(13.4%) 등이 꼽혔다.

‘호감을 갖는 종교’로는 가톨릭이 33.7%로 가장 많고, 개신교 28.0%, 불교 26.4% 순으로 나타났다. 기윤실 등은 이번 조사 결과를 13일 공식 발표하며 관련 세미나를 열 예정이다.

개신교계에서는 최근 교회 성장세와 달리 신뢰도가 바닥을 치면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정한 복음 전파와 교회 성장을 위해선 사회적으로 신뢰 회복이 핵심 관건이며, 이를 위해선 교회들이 이기적 행태를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윤실과 지구촌교회·교회신뢰회복네트워크 등은 지난 2~4일 지구촌교회의 영성수련원인 경기 가평의 필그림하우스에서 ‘교회의 사회적 책임 컨퍼런스’란 제목의 토론회를 가졌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본격적인 토론회가 열린 것은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이다. 토론회에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와 높은뜻교회연합 김동호 목사 등 목회자와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김병연 서울대 교수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신뢰 추락을 부른 개신교회의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방안들이 나왔

다. 김 목사는 “한국 교회의 신뢰가 추락하고 쇠퇴를 부르는 주된 원인은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하지만 교회들이 소명을 가장해 야망을 가지고, 목사가 주인이 되며, 세상을 잊고 버렸더니 이제 세상이 교회를 버리고 있다”면서 “(신뢰 회복을 위해)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사회를 섬기는 본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이사는 참여연대·아름다운가게·희망제작소 등의 활동 경험을 전하며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특히 피폐한 농촌을 살리는 데 교회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연 교수는 “신뢰 회복 없이는 선교도 힘들다”며 영적·윤리적으로 갱생해 사회적 책임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참석자들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며 복음의 본질’ ‘이웃의 고통이 우리 자신의 문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실천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2009 교회의 사회적 책임 선언’도 발표했다.

양세진 기윤실 사무총장은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회는 한국 교회 역사상 처음”이라며 “향후 정기적으로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토론회 등을 떠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신교 비호감’ 누그러져

(조선일보 2009.11.12. 김한수 기자 hansu@chosun.com)

‘비신뢰도’ 작년 대비 15% 감소…

신뢰 이유 첫째는 “많은 봉사활동”

일반 국민들의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신뢰도’는 지난해에 비해 15%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7년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 이후 높아졌던 개신교에 대한 ‘비호감’ 경향이 다소 누그러진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사장 우창록)은 11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2009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 개신교회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19.1%로 지난해의 18.4%보다 0.7% 포인트 상승했다. 또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지난해 48.3%에서 33.5%로 크게 감소했다.

‘신뢰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21.7%)가 가장 많았다.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복구과정과 각종 재난에서 개신교계가 주도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친 것이 개신교 신뢰도 회복에 영향을 미쳤다는 방증이다. ‘봉사·구제활동’은 ‘향후 개신교회가 신뢰받기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사회적 활동’을 묻는 질문에서도 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신뢰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회 지도자,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32.2%)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특히 ‘정·관·재계 활동 기독교 지도자의 말과 행동에 대한 교회 신뢰도 변화’를 묻는 질문엔 ‘긍정적으로 바뀐’이 6.5%인데 비해 ‘부정적으로 바뀐’은 46.9%로 나타나 지도층 평신도들의 언행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높음을 보여줬다.

‘봉사하는 교회’ 신뢰도 높아졌다

■ 2009 한국교회 신뢰도 여론조사

한국 사회의 개신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 약간의 의미 있는 반등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불교, 개신교, 천주교 3대 종교에 대한 신뢰도와 호감도는 지난해 가톨릭>불교>개신교 순에서 올해는 가톨릭>개신교>불교 순으로 바뀐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사실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 9월28일부터 2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종교없음 471명, 불교 229명, 개신교 184명, 가톨릭교 110명, 기타 6명)을 대상으로 전화를 통해 ‘2009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는 ‘신뢰한다’는 응답이 19.1%로 지난해 18.4%보다 0.7% 상승했다. 반면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3.5%로 지난해 48.3%보다 14.8%나 크게 줄었다. 이에 따라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평균 점수도 2.82점으로 지난해 2.55점보다 0.27점 상승했다.

연령별 개신교 신뢰도는 20대가 낮은 반면 50대에서 높았고, 지역별로는 호남과 충청, 경기지역이 높은 반면 영남지역이 낮았다. 소득 수준이 월 200만원 이하인 사람은 신뢰도가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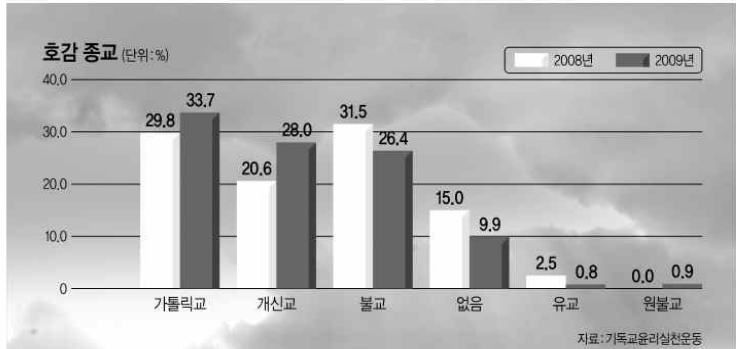
가톨릭이 2위... 불교 제쳐 용산 참사 등 어려운 일 앞장

은 반면 소득이 월 301만원 이상인 사람은 낮게 나타났다.

2-3년 전 대비 개신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더 적게 신뢰하게 됐다’(26.6%)가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4%)보다 압도적으로 많아 하락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회를 신뢰하는 이유로는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가 2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선행의 올바른 가르침’(14.4%), ‘본인이 선택한 종교에 대한 믿음’(13.7%) 등을 꼽았다. 교회를 불신하는 이유는 ‘교회 지도자,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32.2%)가 가장 많았고, ‘교회 지도자의 무분별한 선교활동’(10.0%), ‘타종교에 대한 비방’(9.0%) 등의 순이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기관 평가에서는 가톨릭 교회가 3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개신교회(26.1%), 불교(22.0%)순이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는 가톨릭교회 35.2%에 이어 불교가 31.1%, 개신교회가 18.0%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불교와 개신교의 순위가 역전됐다.



지난해 국내 3대 종교 중 최하를 면치 못했던 개신교의 신뢰도가 올해 높아진 가장 큰 이유로 개신교의 봉사활동이 꼽혔다. 사진은 충남 태안반도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현장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

종교별 호감도 조사에서도 가톨릭이 지난해 29.8%에서 올해 33.7%, 개신교가 20.6%에서 28.0%로 각각 상승한 반면, 불교는 31.5%에서 26.4%로 급하락했다. 또 지난해 호감도를 지닌 응답자가 전혀 없었던 원불교가 0.9%로 나타나 주목을 끌었고, 유교는 2.5%에서 0.8%로 낮아졌다.

조사 결과를 분석한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기윤실 정직신뢰성증진운동 본부장은 “지난 5월 통합 한국교회봉사단이 출범해 한국 교회의 이미지 성숙을 위해 노력하고 용산 참사 때 여러 개신교 단체들이 슬픔을 당한 자와 함께 한 모습을 보인 것 등을 개신교의 신뢰도 제고의 요인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

라며 “2007년 아프가니스탄 선교단 피랍 사태의 여파가 사라지고 이명박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신뢰도 상승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돈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 촛불집회와 이명박 정부와 교회와의 연관성 등으로 추락했던 신뢰도가 봉사하는 교회의 이미지로 높아진 것으로 보아 신뢰도는 교회의 본질보다 사회에 비춰지는 이미지에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교회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일들을 보다 전략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종락기자 jrkim@munhwa.com

한국교회신뢰지표

ChurchTrustIndex

교회의 신뢰성을 자기진단해 보세요

본 자기진단용 한국교회신뢰지표는 2007년 개발된 한국교회신뢰지표(총 98문항)를 20문항의 요약판으로 제공하여 교회의 신뢰성을 약식으로 자기진단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자기진단을 통해 약점으로 인식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기윤실이 준비하고 있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및 매뉴얼을 참고하여 강화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신뢰지표 소개

황호찬 교수(세종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교회신뢰지표 책임연구원)

특정 사회든 조직이든 그 존재 기반은 구성원에 대한, 구성원 사이의 신뢰다. 만일 국가, 교회, 기업, 대학, 가정에 이르기까지 신뢰기반이 취약해지면 단순히 조직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비용의 증대 뿐 아니라, 조직 목적 및 운영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져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게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조직은 신뢰 증진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며 이를 소홀히 하는 조직은 시간의 문제일 뿐 언젠가 쇠락의 길을 걷게 된다. 결국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세계의 여러 국가 혹은 기업을 중심으로 투명성과 신뢰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진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조직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국제적 차원에서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ISO 9000, ISO 26000, GRI, ECFA, UNGC).

한편 우리나라 교회의 경우 극히 최근에서야 여러 사건들로 인해 교회의 신뢰성 증진 및 사회적 책임이 새로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급세기 세계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한 교회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교회(특히 개신교)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 수년 동안 교세가 정체되고 있으며 대 사회에 대한 영향력도 감소되고 있다는 통계(예, 통계청, 2005)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특히 유럽 및 북미 교회의 침체 혹은 몰락이라는 경험 때문에 한국교회 역시 이러한 전철을 밟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위기감은 여러 가지 현상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 중 하나는 한국교회의 신뢰성 상실이 주요 이유라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개 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금전 및 성적 스캔들,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무관심, 사회 현안 문제에 대한 비전문적인 조언 및 인식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교회의 신뢰성이 상실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교세의 정체 혹은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가 교회의 자성과 변화를 통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한국교회가 안으로는 거룩함과 사랑을 회복하고 밖으로는 윤리성과 공공성을 회복하여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다. 이는 단지 교회의 이미지 회복을 위한 외면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내적인 본질 회복을 통한 참된 변화여야 하고, 이러한 변화는 교회 공동체 스스로의 깊은 자성과 체질개선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때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 수준을 가늠하고, 신뢰회복을 돕기 위한 “한국교회신뢰지표”의 개발은 의의가 있다 하겠다.

한국교회신뢰지표는 교회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다. 교회의 비전과 리더십, 재정 및 인력운영, 일상생활 속에서의 성도의 삶,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교회 신뢰성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데 작은 섬김이 되고자 함이다. 측정된 내용은 통계 처리하여 점수를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강점과 약점의 관점에서 서술하여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추후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과 매뉴얼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는데 있어서 한국교회신뢰지표가 작은 섬김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본다.

한국교회 신뢰지표 구성도





자가진단용 한국교회신뢰지표

다음은 전체 한국교회신뢰지표 98개 문항 중 각 영역별로 핵심 질문을 요약한 것이다.

영역	질문	아니다					그렇다				
		1	2	3	4	5	1	2	3	4	5
비전과 리더십	1. 우리 교회는 시명선언문(목회철학, 비전선언문, 장기목표, 설립정신 등)이 있다.	1	2	3	4	5					
	2. 우리 교회의 사명(목회철학, 비전, 목표, 정신 등)은 교회의 모든 조직, 프로그램, 운영지침 등이 반영되어 있다	1	2	3	4	5					
	3. 우리교회의 리더십은 신앙과 행동이 일치한다.	1	2	3	4	5					
	4. 우리 교회 리더십은 성도들을 학력,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1	2	3	4	5					
	5. 우리 교회 리더십은 성도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건의사항을 교회운영에 반영한다	1	2	3	4	5					
조직 운영	6. 우리 교회는 출석교인 수, 각 사역의 운영 및 성과를 교회 내외적으로 정직하게 보고한다.	1	2	3	4	5					
	7. 우리 교회의 사역은 몇 사람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여러 사람에게 위임되며 그에 따른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1	2	3	4	5					
	8. 우리 교회는 부서 간의 업무 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1	2	3	4	5					
	9. 우리 교회는 재정관리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1	2	3	4	5					
	10. 우리 교회의 예산 및 결산내용은 전교인에게 공개되며, 원하는 경우 성도는 관련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1	2	3	4	5					
사회적 책임	11. 우리 교회는 환경보호(분리쓰레기수거, 일회용 컵 사용절제, 대중교통 이용 등)에 앞장선다.	1	2	3	4	5					
	12. 우리 교회의 사회복지사역(지역사회봉사, 교회시설 공개, 장애우 사역, 탁아소운영, 구제활동 등)은 수혜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1	2	3	4	5					
	13. 우리 교회는 다른 지역 교회들과의 연합사역(연합예배, 연합바자회, 연합행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1	2	3	4	5					
	14. 나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사역(사회복지, 환경보호, 연합활동, 사회정의 등)이 교회성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5. 우리 교회의 사회 구제 헌금액은 적당한 수준이다.	1	2	3	4	5					
성도의 삶	16. 나는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는다.	1	2	3	4	5					
	17. 나는 우리 교회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되었다.	1	2	3	4	5					
	18. 우리 교회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효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검토를 한다.	1	2	3	4	5					
	19. 나는 교회의 교제, 봉사, 나눔 사역에 참여하고 있으며(참여 했으며), 보람을 느끼고 있다(느꼈다).	1	2	3	4	5					
	20. 우리 교회는 가정/직장/사회생활 사역(결혼학교, 부부교실, 재정교실, 노인학교, 상담실, 기업선교 등)에 대해 교인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며 이를 교회운영에 반영한다.	1	2	3	4	5					

	OO 교회	표본교회 평균	평가 ^{주)}
비전과 리더십		4.32	
조직운영		4.18	
사회적 책임		3.66	
성도의 삶		4.19	

주) 전체 20문항의 평균이 4.5점 이상이면 '탁월', 4.0-4.4점 사이는 '우수', 3.9점 이하는 '보통 또는 저조'

* 표본교회는 한국교회신뢰지표를 개발하기 전 파일럿테스트를 한 11개 교회를 의미합니다. 한국교회 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교회신뢰지표 적용 안내



신뢰지표는 비전과 리더십, 조직운영, 사회적책임, 성도의 삶의 4가지 영역에 총 98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질문을 제외하고는 5점 척도로 측정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신뢰지표의 각 질문은 여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체 토론회 및 공청회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설문지는 평가를 원하는 교회의 교인을 대상으로 배부되며 모든 결과는 철저하게 익명으로 진행되어 결과의 객관성을 확립하도록 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평가는 각 영역별로 합산하여 평균이 4.5점 이상이면 '탁월', 4.0-4.4점 사이는 '우수', 3.9점 이하는 '보통 또는 저조'로 평가한다.

그 결과 비록 총점은 '탁월'이라 할지라도 특정 질문의 점수가 4.5점 이하인 경우 그 질문에 관련된 내용의 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타 교회를 대상으로 한 샘플교회의 평균과 각 질문을 비교하여 저조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검토하도록 권고하며 개선안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교회의 재산에 대해 매년 재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이를 실시하도록 제안하며, 교회의 재정이 교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의 개선을 권고한다. 또한, 각 영역별로 점수가 평균 이하인 경우 각 영역의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개선을 위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또는 매뉴얼을 보급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준비하고 있는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또는 매뉴얼은 다음과 같다.

한편 위 신뢰지표는 설문지에 의한 응답자의 인식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성이 내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규정이 존재하지만 응답자는 없다고 대답하거나, 규정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교회의 리더를 임명하지만 응답자는 그렇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서의 결과에 따라 개선안을 마련하고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각 항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제3자의 입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이처럼 취약한 분야가 개선됨으로 인해 궁극적으로 교회의 신뢰성이 제고되는 것이 신뢰지표 개발의 주된 목적이다.



한국교회신뢰지표 신청방법 및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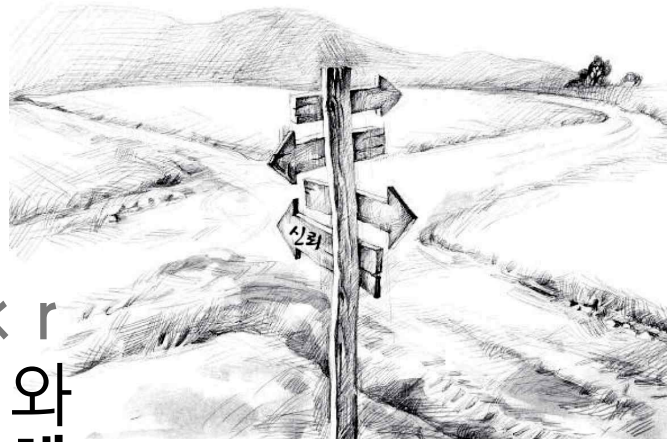


- **1단계 - 신청** : 교회가 신청서 양식에 따라 신청서 제출
 - 한국교회신뢰지표 담당자가 신청교회와 협의하여 일정을 확정합니다.
- **2단계 - 작성** : 교회규모에 맞는 성도분들을 표본선정하여 설문작성
 - 교회규모에 맞는 성도분들을 표본선정할 수 있는 안내문서를 담당자가 교회에 보내드립니다. 안내문서에 따라 30명~50명 내외의 성도분들을 선정하고, 미리 한국교회신뢰지표 연구보고서를 읽어오실 수 있도록 교회에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 한국교회신뢰지표 담당자가 직접 교회에 방문하여 성도분들에게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하고, 진행합니다.(소요시간 30분 내외)
- **3단계 - 보고서** : 작성된 설문에 대한 통계처리 및 결과보고서 제공
 - 설문통계를 통해, 각 영역별로 강점과 약점의 관점에서 서술형으로 보고서를 작성해 드립니다. 교회별 설문결과는 절대 외부에 발표하지 않습니다.
- **4단계 - 강연** : 특별강연 및 자율적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도입
 - 결과보고서에 근거한 강연 또는 인터뷰 컨설팅을 진행하며, 교회가 자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약점으로 지적된 각 영역에 대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과 매뉴얼을 제시합니다.



한국교회신뢰지표 2008년 실시 교회

교회명	교단	담임	교회위치
분당샘물교회	예장고신	박은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머나교회	기침	배재인	대전시 서구
청량교회	예장합동	송준인	서울 동대문구
남전주성결교회	기성	오성택	전북 전주시 완산구
아현감리교회	기감	조경열	서울시 서대문구
사천읍교회	예장통합	김세봉	경남 사천시 사천읍
반월중앙교회	기감	박종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부천평안교회	예장합신	원영대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서울남교회	예장고신	황영익	서울시 서초구
안암제일교회	예장합동	조윤	서울시 성북구
송죽교회	예장통합	정의국	서울시 서대문구
한사랑교회	예성	이택규	경기도 안양시
소망교회	예장대신	이정현	경기도 시흥시
세검정교회	기감	황문찬	서울시 종로구



www.trusti.kr 기윤실은 한국교회와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1987년 시작된 기윤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정통적 기독교 신앙을 기본이념으로 복음에 합당한 윤리적 삶을 통해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기독교인과 교회가 되도록 섬기며, 타자를 배려하고 환대하는 문화를 통해 생명과 평화의 공동체를 만든다”를 사명으로 합니다.

기윤실은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핵심가치를 기반으로 신뢰가 주도하는 사회와 교회(TRUST INITIATIVE)를 만들어 가기 위해 <사회신뢰회복운동>, <교회신뢰회복운동>, <회원실천운동>을 전개합니다.

— 2009 | 기윤실운동의 3영역



기윤실은 조직운영에 있어 더 깊은 투명성, 더 높은 책무성, 더 넓은 공공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 우창록(법무법인 율촌 대표변호사) ◎공동대표 : 김동호(높은뜻교회연합 대표목사), 이장규(서울대 전기컴퓨터공학부 교수), 이동원(지구촌교회 담임목사), 임성빈(장신대 기독교외문화 교수), 주광순(부산대 철학과 교수) ◎운동본부장 : 노영상(장신대 기독교윤리학 교수),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선욱(송실대 철학과 교수), 신동식(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김은혜(송실대 교양학부 교수), 조성돈(실천신대 목회사회학 교수), 황영익(서울남교회 담임목사) ◎사무총장 : 양세진

기윤실 운동은 정부나 기업에 일정 의지하지 않고, 개인/단체 회원 여러분의 후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기윤실이 만들어 가고자 하는 “신뢰받는 교회 & 사회” 를 위해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기윤실은 1999년부터 외부 공인회계감사를 통해 재무적 투명성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후원문의_ 02-794-6200 / 후원계좌_ 국민은행 037-01-0504-979(예금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공공신학 : 한국교회의 사회적 섬김에로의 초대

세상 속에서 소통하는
교회의 신학적 토대를 제시!

임성빈 외 13인 지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엮음
264면 / 12,000원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요즘 가치와 문화, 철학의 다원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독교에 대한 신념을 유지하면서도 세상과 신뢰성 있는 소통을 해나가야 할지에 대한 신학적 토대를 다룬 책 - **손인용 목사**(덕수교회,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대표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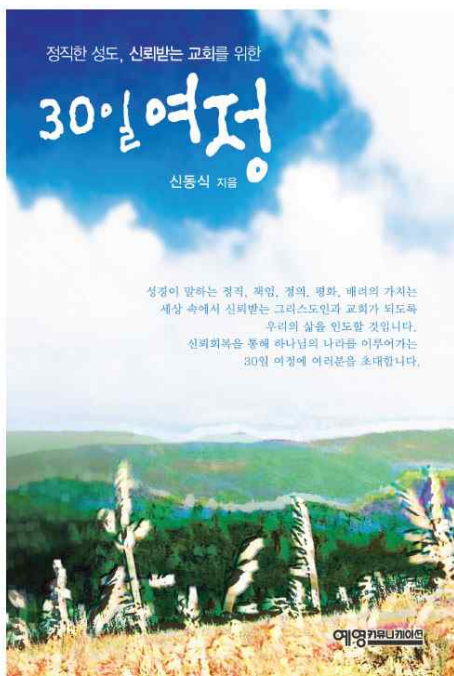
이번 공공신학 출판은 외국문헌을 국내에 소개하는것을 넘어 국내 학자들의 한국교회를 향한 애정을 담아내고, 신학적 토대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철학, 행정학, 사회학 등 제 학문에서 논의되고 있는 공공성에 대한 화두를 함께 다루고 있어 우리의 지평을 넓혀주고 있다 -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기윤실 공동대표)

예영커뮤니케이션 | 기윤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저자(목차순) : 임성빈(장신대) 이운경(안양대) 김호경(서울장신) 이상원(총신대) 이상화(한목협) 조성돈(실천신대) 장신근(장신대) 배요한(장신대) 최태연(백석대) 정재영(실천신대) 이승중(서울대) 강원돈(한신대) 김은혜(송실대) 양세진(기윤실)

정직한 성도 신뢰받는 교회를 위한 30일 여정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를 통한 균형있는 성경 묵상



신동식 지음 | 9,000원 | 예영커뮤니케이션

성경이 말하는 정직, 책임, 정의, 평화, 배려의 가치는 세상 속에서 신뢰받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할 것입니다. 신뢰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30일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단계의 묵상 여정

- * '30일 여정' 묵상교재는 총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1_오늘의 말씀 2_말씀 나누기 3_깊은 묵상 4_삶에의 적용
- 5_정직한 기도 6_미션뱅크
- * 6단계의 구성은 간편하면서도 집중적인 말씀 묵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런 점이 다릅니다!

- * 개인 구원과 사회적 책임 사이에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 * 5개의 핵심가치를 하나님과 이웃, 교회와 가정, 직장과 자신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 묵상은 물론 그룹 토의 및 나눔, 특별 집회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cycled Paper

본 자료집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환경을 생각하여
재생종이(양코르지, 종질만화지)로 만들었습니다.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
www.trusti.kr